

라가시도록 권할는지도 알수업소 나도 어위 이자리에들어왔다가 그저나갈리
 는 만무하니야 로형네를 내가 능히 구하여 드릴는지 또는 구하지못할는지 좌
 우간 무슨결말이 잇셔야지요 다형히 로형의 위급한일을 구하면 나는 사람의
 목숨들을 건지는것이요 만일내힘으로 구치못하면 로형네는 이자리에서 제상
 을하진하는사람이니야 제상을 썩어나가는 사람이면 무엇이 붓그러우며 무엇
 을쓰리여셔 말을못하겠소 조곰도 관계가업술줄로 나는아오. 그리고 만일내
 가 로형네의 목숨을 구하는수가잇스면 나는 로형에게 큰은인이니 은인에게
 되항여셔야 무삼비밀한 말씀이기로 못할것이업슬듯하오 나는 공연히 남의은
 근호사정이나 알고조항여셔 하는말이 안이라 실상은나도 로형의 사정을들
 을만할마음이잇셔하 하는말이요 조곰도 녀려말고 말씀항여주소」 수일은가
 장 엄숙한되도로 되답을 저축한다 그놈조는 할일업시 입맞게도나오지아니하
 는 목소리로 잔신히 입을열어 되답하는 모양이라 「당신의말씀은모다 고마
 운말씀이올시다」그러면 어셔말씀항시요」네 말씀항오리다」지금 이디경
 에 일으려서 조곰이라도 은휘할필요는업스니 혼아도숨기지말고 다 말씀항여
 주시오. 아 참내가 급한모음에 이젓소구료 나는새문박사는 리수일이라하는
 변호사요 그러한되 오날우연이 광경을당항여보니 그것도 무삼연분이 잇셔하

그러한것은가보오 결단코 내가 로형네에게 히로운일은 업도록 항여줄터이요
 나는 사람두목숨을 한번구항여셔 량인의게 적션을항고십쇼」그토록 말씀을
 항여 주시니 더욱이 고마운말씀은 일오칭량할수업습니다」그러면 어셔 말
 습항시오」항여 수일은 비로소 편안히 자리를 곳쳐안지며 되답을 기드리는
 되 그놈조는 말내이기를 심히 주저항며 「사람도 항도 복잡항니야 무엇을먼
 저 말씀항여야 조출는지……」 「드른말씀은 어지항엇든지간에 첫저로 말
 습할것은 로형네가 부부가되고십어도 될수업셔서 죽으려하는것이 무삼싸들
 인지 그것을먼저 말씀항시오」네 말씀항저오 되단부그러운말씀이올시다만
 은나는 주인의돈을 너무만이 축을내어셔……」 「아그러하면 로형은 주
 인이 싸로잇소」네그렇습니다 나는 본리 서울사람으로 년전부터 주인에게
 잘보였든지 주인이 경영하는 무역회사(貿易會社)에잇다가 지덤이 평양에설
 시된이후로 그디덤의 지비인으로 삼스년전부터 평양가셔보던 최원보(崔元
 甫)라하는 스름이올시다. 그리고 이녀자는 평양에서 기생노릇하는 유향이라
 하는 기생이올시다. 유향은 그덕야 일어나 수일을 항항여 얼골은 들지못하
 고 잔신히 허리를굽히여 인스한다」그러셔 어지항엇단말이오」그런데 요스
 이로 이유향이를 구실을 썩이려하는 스름이잇섯서오」 「올치 그리셔」그리

고보니 싸 옥향은 기생의 몸으로 아모리 실프리도 그 스름을 쓰라 가야 할 모양이 되고 또 그는 주인의 돈 쓴 연고로 하여서 주인에게 고소를 당하였습시다 그러고 러하니 싸 나는 술아잇스면 감옥서의 귀신은 면치 못할터이니 싸 철업는 생각으로 이 모양을 하였습시다」 하며 넘겨 두스름이 서로 붓그리는 얼골을 들지 못하여 다시 말을 계속하지 못하고 묵묵히 안자있다 「그러하면 지금여기 돈만잇스면일이 피일모양이요 구려 로형이 주인의 돈을 범포하였다하나 그 돈을 충수하여서 내여 노으면 고소 당할리유도 업슬 것이요 저녀자의 몸값은 다른 스름이 내여 논 이만큼 로형도 내여 노으면 아모군 소리가 업시 되겟구료 그러나 로형의 지금 내여 노을 돈은 모도가 얼마나 되오」 삼천원 가량…… 「삼천원이야 그리고 저리고 저녀자의 몸값은 얼마나 가지면 될듯하오」 최원보는 옥향을 도라다 보며 무엇이랴 두서너머 말을 하더니 「이것저것 모도하면 육철박원쯤 들겟쇼이다」 「너사 잡아 삼천철박원만잇스면 로형네 두분은 도라갈필요가 업겟구료」 계산을 하여 보던진실노 그 넘겨 두스름의 목숨은 흔스름에 터하야 일천 철박오십원에 지내지 못하노도다 「돈이라야 불과 삼천원내외 잔을 가지고 죽나니 스는니 하는 것이 터단이 어리석은일이요 그 돈은 흔스름은 내 힘으로라도 내내히 변통을 하여 드릴터이니 넘려 마시고 로형의 저서 흔 스정을 써지 말고

말씀을 야주시오」 이와 혼흔에 이와 같은 스름의 말이 얼으나 그 스름의 귀에는 깃겁게 들니 엿스리오 최원보는 그 말이 거죽인지진심인지 분간할여가도 업시 다만 남의 근심을 내뭇과 갖치 위로하여 주는 수일의 천절할말에 겁히 감동되었더라 「천일에는 한번인 스도 업던 량반이 우리 갖치 어리석고 죽어야 할 스름을 이다지 천절하게 마음을 쓰시는 것을 뵈오니 싸 도로 허붓그림고 면목이 업습니다. 이렇듯 자서히 물으시는 말씀에 엿지 대답을 안이 하겟습다가 그 말씀을 하즈면 모든일이 모다 붓그러워셔 남의 압해서 말할수가 업습니다. 지금 말씀은 숨천원돈으로 말씀하면 바로 말씀하면 방랑하노느라고 회사 돈에다가 손을 터여서 처음에는 이리저리 변통을 하여서 상할 형식이 되더니 나종에는 회사 스돈이 저리가 비이니 싸 그씨는 여지의 짓도 하여 가노라니 싸 저연히 그돈이 늘어서 나종에는 짐이 묵업게 되었습시다 그러고 그러하니 싸 저연 거리도 막히고 서울이던 주인도 괴미를 초차 알았노앗스니 도적질을 하드리도 그돈은 충수하여 노야야 큰야단을 면하겠기에 어리석은 생각으로 노름스뒤를 당하였다가 거과도 미자 실패를 하고 보니 모단 부처가 삼천원원이 되얏셔요 삼천원중에서 일천오백원 가량은 노름판에 내여 버렸셔. 그러나 주인의 돈을 범용을 일흔 가지만 갖하면 주인이라도 십여년 갖치 지내는 정분으로 용서할도리도 잇겟지요 만은 그

외에 이계집으로 하여서 이일을 주인까지 알고 호로는 주인이 압호로 불너 안치
 더니 처음 갖흔일이니서 이번에는 용서하니 다시는 그런계집을 갖가 하흔지 말
 나고 엄절히 ^음놈을압디다 그려「수일은 점점무름을 압호로 되여 밀고 갖가 하
 가안지며」응 그려서「주인이 나다려 계집을 갖가 하흔지 말나 호는것은 또
 다른사람이있지 그것은 주인의 족속살되는 계집아 허훈아가 장성하얏셔도 입
 디까지 시집을보되지못하고 의탁할곳이업셔서 그삼촌의집에서 다려다 두었는
 디 전전부터 나다려 족속사회가되라고 권하는것을 나는 암만하야도 마음이
 적어서 이핑게저핑게하고 오날날까지 나려오다가 요스이로는 밤삭 긴하게시
 리 말하면서 범용흔돈은 니가다 탕감하여 줄터이니 그져 족속살에게 장가들
 나고흐니다 그려 그리고 내몸으로 말승하면 의리로호는지 평리로호는지 또
 는 주인의고마운 마음으로 호는지 엇지 그말을 거역하겟습니가만은 제마음
 을 제마음디로 호지못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고 그여히 그말을 거역하엿
 습니다 그려 제마음에 실인것이야 천지를 쥬기로 엇지 하닛가」응 그려서 엇
 지하얏소」그리고보니서 그후에는 주인이 심퍼렷케 분이 나서 만일네가 너
 말을 복종치안이호면 내가 쓴돈을 드러놓든지 그러치못하면 내가 고소하
 너를 종역을시킬터이니 너도 감안이 다시 한번 생각하하여서 주인의를 말을 복종하

라고스이에 스름까지 노아서 몇번을 말하는것을 뜻스내 불청하얏지요」그것은
 로형이 잘못이요구료」그리기에 너가흔일은 어천만에 호가지도 잘하흔것은업
 습니다 그리서 주인에게는 아조하직하는편지까지 써서 놓코 나왔는디 그씨
 서지는 걱정되는일이 그뿐이더니 멧칠아니 되여서 또 옥향이구실 씨인다는말
 이 일어났습니다 그려」그리서……」「이옥향의 어미라호는 스름은 본리 수
 양어미인디 나도 가끔소문은 들었지요만은 엇더케 심하게고 육심만흔지호
 로도 야단안이호는날이 업는 스름이올시다 자셔이 말승하자면은 일오호이업
 습니다만은 이 옥향으로 말하면 일흔이 딸이라 호얏지 실상인즉 어려셔부터 돈
 을주고 사다가 기성질을 식이는디 사람의 마음은 조금도업고 키도야지 갖치
 부려먹어서 돈받게는 아지못하는 아귀올시다。나도 자로 저의집에 단닐씨는
 돈도 잘쓰고하니서 그리말이업더니 요사이와서 내가 돈을 잘쓰지못하는양을
 보고서는 날마다 옥향을 찌러가면서 그사람을 웨 오지못하게 구지안나야 그
 박아지를 극난처에 맛춤 옥향의 몸을 속양하여가겟다는 사람이 싱기엿는디
 그사람은 삼사년부터 옥향에게 단이던사람으로 지금 김산은행(金山銀行) 평
 양지점장으로 잇는 사람이올시다」슈일은 깜짝 놀너이호듯시 고기를들며「응
 ……무……무엇이야」당신께서도 그사람을 아심닛가 김……김중비라호는…

..... 「김중빅이 응그러면 나도 알지요 그리 김중빅라하는 사람이 옥향이 구실을 써이려고하던 사람이라하는 말이.....」 하며 슈일은 눈에 눈살과 돌고 얼굴에는 분기가 가득하여 지는듯 최원보와 옥향은 은근히 놀라였다. 슈일은 옥향을 도라보며 「김중빅라하는놈이 그리서 옥향의 목을사가려고 하였단말인가」 옥향은 수건으로 입을 가리우며 붓그림을 먹음고 「네 그렛습니다」 그러하니 옥향이 그 스름에게는 안이 가려고 반타는 단말이지 「네」 「삼사년전부터 김중빅가 옥향에게를 단니었다하니 그간에 아마 그사람의 신제는 만이 져졌지」 「신제는 하나도 전일이 업습니다 본리 그사람은 마음에 맞지 않아니하니 신세를 지여주려고하여도 제가 맞지를 아니하였지요 단지 그집에서 불으러보시면 기성의 직척으로 가서 놀기만하였지요」 「그러면 그사람을 령감으로 섬긴일은 업섯구료」 옥향은 그러할말을 귀로듯기까지라도 더러이 녀이는 모양이라 「아이고 천만에..... 흥할말습도하시네 그런일을 하였슬리가잇습닛가」 허허그러면 옥향씨는 일은바 미창불리음으로 직조와 소리는 팔앗슬지언딩 이곳저곳에 몸을 허락할일이업고 다만 장리의 박년을의탁할 최원보씨에게만 정을두었다 하는말이로구료」 「네 그말습이올시다」 슈일은 이옥이 옥향의 얼굴을 드러다보기를 마지아니하니 문득 눈속으로 구슬웃흔

물스 방울이 흘방울 흘러나리이다 「아! 참 옥향씨는 가위사람이오..... 내가 비록 목숨은 내여버릴지라도 처음에 흥분했었던 사람과 동괴 평생하리라 하는 그마음이 실노 가상이오」 무산연고인지 분간치못하겠스니 슈일의우는 모양을보고 두사람은 망연히안즈있다 「수일의 눈물흘리는것은 무엇일 위하야 감동됨이요 그녀자는 미창미음하는 일기천기로도 능히 죽기로서 결심하고 의리와 정절을은 전히 직혈을엇고 리육에 그마음을 짜잇기지아니함을 탄복하여 울고잇습이다」 을소 올라 사람이라하는것은 그리야하는법이 지 그것이가 위너즈의 직혈만흔도리원다 오날날 이와웃흔 경박흔세상에서 이렛케 죠흔마음을 가지고잇는사람은 아조업는줄노 알았더니 오날밤에 옥향씨의 마음과웃치조흔말을드르니 니마암도 엇지조흔지 감동이되여서 이렛케 나는 눈물이 흘러는구료 나는 로형네의 사정을 남의일노알지안코 너일이나 다름업시 김히 감동이되오」 하며 수일은 급히 눈물을씻는다 「그리서 김중빅는 엇지하였소」 「그스름은 너가그렛케 너여던건만은 그것도 모르고 칩칩시러이구지요 그리고 세상에스나희로도 제가제일인체 영리하기도 제가데일 점잔키도 제가데일 인체하면서 말을두마디만하면 발서돈이지오 돈이라면 스름들이 숨도쉬지못하고 그압해서 죽는줄만알고 천원이나 만원을 여겨서 너여노으면 너의가 엇

지홀러이나고 일상 그것케 어리석고 못생긴소리만하지요 그리기에 기성들에
게도 조롱을밧고 놀려쥬지 할스름도 그스름반가워 하는것은업셔오 모도실여
하지「그러할것이 지」「그러할스름이니사 여간 정당할말노 거절하는것은
조곰도 엇지알지안이하지요 그리고셔 이러니 저러니 되지도 못할말을 가지
고 썩이듯시하여도 저는 일할말을 듯지아니하니사 나종에는 할수업셔사 저
의어머니하고 은근히 무삼 언론이되엿든지 뇌용으로논 아마결정이 다되엿든
가보아요 그리기에 어머니라하는니는 날마다 최원보는 상관을말고 아조 김
중비의첩으로 가라고 야단을을지다그려 말을듯지아니하면 두다려는쥬고 말
을듯지니 마음이 향하지는아니하고 단지 나오는것은 신세홀란이요 눈물밧게
업습니다 팔자가 스나와셔 어려서부터 기성질은 하엿셔도 나종에는 마음에
잇는늠편이나 엇어셔 늠게나 지미를볼가하엿더니 그도되지안는팔자를 엇지
함니가「그러셔 나종이 엇지되얏소」「그리기로 제가 들을리가 잇게습니가
되게로오면 평성을 금의옥식에 싸이여셔 팔조케 지낼터이니 무엇이걱정이
되여셔 싨라고 하느냐고 집이라야 마누라가 잇는가 시부모가잇는가 무슨념
려가 잇셔셔 그리하느냐고 어린아히 달니듯하옵되다 그러치만 제가 거괴속
아셔...」다시정신을 차리고 말을 듯는수일은 은근히 속으로는 가슴이떨

니여 니아온다「그래셔 그스름은 엇지하여셔 마누라가 업다고하는말이오」
「엇지홀일인지 아지못하야도 그스름의말을 조괴의부인은 일상누어서만 지너
고 병인이나 조곰도 다른것이 업스며 아히도업고 일은하지 못하니가 쓸터가
업셔셔 저의천정으로 쏫초보되엿스니가집에가셔 잇드래도 시앗에눈치보일것
도업고 아모걱정업다고하는 말눈치입되다」그러면그것이 정물인지 알수잇소
안히를엇지 함부로 조초바린단 말이오「이리쿵 저리쿵 하는말을 엇지 밋기
야 홀슈가 잇습니가만은 감안이 시골셔 소문을 듯던지 모양을보던지 엇지하
낸지간에 그부인이라하는스름과논스이가 조치못할가 보옵되다」「허々」하며
슈일은 홀연고기를 드리우고 쌈을썩다시 무슨생각을하고 잇더니문득 눈을뜨
며「그러면 그안히하고논 서로썩이 맛지안이하는게구료 그래서심지어 천정에
사지썩쳐 보닌이게저 세상일이 모드그러하여」슬푸다 슈이의 뉘웃침이여 슈
이의한이며 슈이의슬음이며 슈이의고성이며 슈이의근심이며 슈이의팔조여
수일은 이긋흔 생각을함의 다시슈이의 박명함을 생각하며 또눈눈압해련연히
낫타는다 수일은 지금살아잇는 순애보다도 이제죽고조하는 옥향의 어리석지
안이함을 반가워하며 전일에조기가 사랑하던 스름은능히 구하지못하고 오히
려 우연히 맞난다른스름에게 은혜를 베푸는것을 스스로탄식하며 조괴의문의

불행함을 슬허한다. 이씨에 욕망은 다시 이약이를 계속하고 수일은 귀를기우
 린다 「한참 이럿케 야단으로 지니일씨에 최원보씨의 스정이 또 급하게 되여
 서 만일 돈삼천원이 당장에 얻을것호면 증여를 면하지 못한다 말들듯고저
 는 엇더케 놀디엿는지 정신이 앓듯하여서 두스름의 사정이 모도 이지경이
 된바에야 죽을슈박게 다른도리는 업슬줄로 그씨부터 생각하여든 일이올시다
 그러나 다시 생각하여 본즉 죽는것은 마지막으로 가는일이니 초라리 김중비
 에게라도 돈삼천원만 썩어드가 일을 폐여불가하고 최원보씨에게 의론한즉 너
 몸이 아모렷게되든지 네 생각되로하여라 돈삼천원에 살니여서 네가 김중비의
 게로 가는것이 쫓게스나 혹은 나하고 흠씨 죽는것이 낫겟나냐고 이럿케
 말을하니 다그려 「올치 그러할것이 지」 「저는 돈뭇천원으로 하여서 김중비호
 혼 사람에게 전당물건이 되고 심지안이 할마음은 고사하고 지금서지 물을부어
 도 식여나갈들이업게 지니여오든 정리로 그인연을 싣코 다른데로 가려면
 라리 죽어바리는편이 낫지안케스름이 무엇하려그씨짓 못난자나희를 바라
 고가겟습니가 맘은 돈으로하여서 두사람이 목숨을 싣는것은 너모도원통하기
 에 삼천원을 너일는지 안이내일는지 그것은 알수업셔도 만일 님여늦거든 나
 는 그리로 잠잔만 가셔있다가 다시 곳 도망하여 오지요 그러면 그만안이온

니가. 잠시동안 피츠에 마음만 주치못할뿐이지요 그러도 죽는것보다야 낫지
 아니하겠습니가 그말을하엿드니 최원보씨의 말슴은 그런것을하면 스기취제
 라고합니다 그러 「올말이요 스기취제가 죽 그러할것이외다」 고기를 드리우
 고 묵々히 안쪽이던 최원보는 욕망의말이 나오기전에 먼저 대답한다 「그것은
 진정흐 스기취제를사다 계집을스이에 노아서 남의돈을속여먹으려하는니보다
 남의돈을 스나희답게 그티로 범용하는것이 오히려죄가 경할듯하외다 그런악
 할일을 행하여가면셔라도 구츠히 목숨을 보존하려고는 생각지안습니다. 그리
 고또 이욕망이로 말슴을하더리도 오날날까지 김중비를 그러케박되를하고본
 체도안이하다가 지금와셔는 돈에엇지할수가업셔서 몸을허락한다하여셔야 스
 림의가치가 니모업지안습니마 그리셔야 스름의 허물을쓰고 나온본의마 어티
 잇겟습니사. 나는 돈이업셔서 계집하고 혼마지로 정스(情死)하얏다난 스람
 의 조쇼는들을지언딩 계집을 피라마지고 저스람은 잔신이 군석을 면하얏다
 는 조쇼는듯기설여요 그러할마음을 먹으랴면 두스람의 목숨을 구할방법은
 만이잇습니다. 그러할지만은 목숨을 살녀하면 이유에 더욱 좃치못할일을행
 하야할터이니 아모리 생각하여도 죽어바리는 수박게업다고 나는죽기로 작딩
 을 하엿스니 네마음은 엇디하냐고 물엇지요 「올치! 그런데 욕망씨는」 하

며수일은 옥향을 도라다본다 「저는 지금다시 김중비니 무엇이니 말씀할것은
 모도 그 제흐름으로 인연이야서 최원보씨가 이모양이 되었스니서 아모조록엿
 더케든지하여서 그사람을 구하여니일성각으로 혼말씀인데 만일 그사람이 죽
 을것又흐면 나흔즈살아잇스면 무엇을혼릿마 당신이도라마시면 나도흔씩죽
 겠노라고 약속이 되여서 죽을곳을찾노라고 말니여기까지 왔습니다」 「두분의
 말씀은 다져서히 알아들었소」 하며 슈일은 호을노 흥중이 상연하고 흥쾌하
 야 감동되는 마음으로 다시 전일순이의 무정하든바를 생각한다 「옥향씨
 로 말을하면 기성의몸으로 능히흔스나희를 직히고 잇다가 그스나희가 몸
 이 타락하야 혈수업는경우에 잇건만은 그스름을 박티하지안코 섧으로일
 으면 봉오리로 잇는몸을가지고 조곰도 원흥하마음이업시 스나희를 위하
 죽고즈하니 그아름다운마음은 엿다비하여말하느니 옥향씨의 그감스흐마음에
 녀역시 엿더케 감동이 되었느니 눈물이……이러케 흐르느구료 옥향씨는
 아모조록 일평성을 두고서 지금마음을 바리지마오 그마음흔아가 그딤의보비
 요 또는 최원보씨에게도 큰보비가될것이오 동창하면 그딤 부사간에 무흔々
 보비가 될것이윈다, 이후라도 옥향씨는 남편되는 최원보씨를 위하여 죽을일
 이 잇거든 아모써라도 죽으시오 아모써라도 남편을위하여서 죽으리라하느니마

음은 잇지말고가지고 게시오, 여천만연중으로서 다만흔스름을 바라고잇는이
 상에는 물론 그스름을 위하여서는 목숨이라도 악기하지아니할마음이 잇서야지
 만일 처음부터 그마음이업슬것갓흐면 차라리 그스나희를 단념하느편이 조흔
 것이오 한번 마음먹은스름에게는 썩가 부셔지고 목숨이 업서지더리도 결단
 코 마음을 변리하지말아야하지 공연히 외양으로만 정이 들었느니 너안이면
 니가 살수업겠느니하느것은 티기 속마음은 싸로잇고하느것인디 그러흔줄은
 아지못하고 진심으로정을두고 스모하는 스름이잇다가 홀연 일조일석에 녀여
 박차고 도라보지아니하면 그소박맛진스름에 마음이 엿더하겠는가 생각하
 보오」 하며 수일의 목소리는 더욱 쉼니인다 「나는 생각하기를 이제상에는
 그러흔일이 만타하오 그와갓치잠시간으로스람이니 정이니하느것은 도로혀
 업는것이낫소 소박을하는스람이든지 소박을맛는스름이든지 다갓치 나중은죽
 치못하윈다 나는 그런 일을 당장에 지금당하고잇소 당하고잇는스름으로 지
 금 그딤네가 이와갓치서로일시에 죽을지언정 허여지자는안이하겠다하느것
 을보니싸 녀마음까지라도 얼마는 겁고 반가우며 또는 그딤네의 장리의행복
 이 엿더하겠소, 그딤네 두분은 그마음을 영원토록 녀여바리지말고 또는 잇
 지말고 오날밤의 그마음으로 일평성을화목하게지키시오 나는 그모양을보고

심소, 그티네가 오날날 죽는다 하는 것은 망녕된인마음이니 삼천원이나 사천원은 너가 엿더케든지 변동하여 드리오리다. 수일의 하는말을듯고 있던 남녀 두사람의 마음은 더욱에서 활불(活佛)을 맛남이나 다름이없다. 지금에 마시려하던 독약(毒藥)은 변하여 양약(良藥)이 되었도다 두사람은 깃거운듯 놀나우듯 귀신인가 스름인가 다시 수일의 일과를 쌍속갓치 바라보고있다. 방안에 등불은 점々빛이 쇠잔하여가고 영창에 조희는 점々희여가는데 그밤은 밧셔 다가고 시벽날이 밧가질씩이라. 남녀 두사람의 운성(運星)에 가리엿든 구름은 버셔지고 시벽에 도다을으는날빛과흔가지로 다시 이세상의 광명을엿덧더라

데오장 便紙(편지)

리수일씨 전 상장

부모의 은덕으로 세상에 출생하니 후로 오날사 까지라도 하는님과 붓쳐에게 기도와 축원하여 본적이업던 이몸으로 요사이는 일심으로 정성을 띠디신성에게드리와 존례의복록을 주야로 축원하고 있으며 이곳은멀지아니흔 목숨으로 병중에떨니는 붓을억제하고 흥중에 싸이회포중 만분일을 적사오니 다행이 이곳의바라는 마음이 신명의 도은심을 입사와 이편지를 한번보아 주시면 이몸은

당장에 이세상을 영결하고와도 조곰이라도 유한이업겟스오며 전일의 죄과로하여 아모리이몸을 미워서할실지라도 이제는 뒤웃치고 목숨까지 얻으려하는가련한 계집이오 죽을씩에 림하여 유언으로 아옵시고 이번편지는 자셔이보아 주시기를 천만번 축원하옵는이다. 우리가 평성에 다시 맛나되을일이 업슬가하엿습더니 우연히 전일에 잠잠맛나되온것은 하늘이 도으심인듯하오며 그시에 이곳에 반갑던마음은 어디다가 비유하을는지 멧히동안을 두고 가슴에 싸이고 싸엿던말씀은 한마디도 하지못하고 면저압스는것은 눈물이오니 죽기는 원통치아이하오나 그씩에 자셔히 말씀못하일이 한이되오며 눈물스이로잠시 바라되온 얼굴이 오늘사까지 눈에잇치지안스오며 다른스름의 얼굴을보아도 모다 당신의 형용갓스오며 더욱이 요사이로는 슬픈마음을 잠시도 억제치못하고 눈물과 탄식으로 세월을보느옵는이다. 여러히스만에 일들을되오니 전일의화려하시던 모습은 조곰도업스오시고 놀납도록 수척하섯스오니 그씩의이곳마음은엿더하엿겟스오며 그간에 무삼병환이게셔 그러하심잇가 나의허물로하야서 근심으로 그러하심잇가 그후로는 더욱 마음이 노이지안습고 밤이면 흉흉몽스만보이오니 아모조록 존례를무병장수하옵도록 보중하옵시기를 축수발원하옵는이다. 이곳은 너의몸으로 붓그러움을 붓그러움으로 아지아이

높음고 뜨거운얼굴을 무릅쓰고 뒤편에 가서 흉중이 시원하도록 말씀이나
 다방을 가호였습더니 그 때 여의히 말씀할 기회를 엿지 못함고 도라와 월일업
 시 지필을 밧지와 수조알의 오니 저서이 이곳의 마음을 살펴 주시옵소서 이곳
 의 죄악은 지금 다시 말씀할 것도 업습거니와 우리가 하도 거연히 리별을 하
 와 그날로 인히 병이 든 몸이 하로도 깃스 곳흐름은 업습고 눈물로 세월을 보
 니 올다가 날이 갈수록 점사 병은 더하여 가옵고 가슴에 슬음은 점사 쓰이여 수
 일절 불터는 자리에 누어 일지 못함고 다만 마음에 생각나고 눈에 보이는 것은
 랑군의 정성과 랑군의 얼골이 옴는다이다。 이제는 이곳의 목숨이며 저 안이 하엿스
 오니 비록 정견에는 지은 죄로 일만가지 형벌을 당할다 하옵드리도 조곰도 실치
 안스오나 목숨이 업서 질적에 당호와 서는 못이져하는 랑군의 압해서 눈을 감을
 가 하얏습더니 죄악이 저중흔이 몸은 그 여의치 못함오니 이제는 다시 랑군
 의 얼골도 뵈옵지 못함고 죄를 스하여 주신다는 말씀도 듣지 못함고 디하로
 도라가는 이 몸을 불상히 녀이여 주시옵소서。 이 몸은 비록 자차지얼이라 하
 겠스오나 이와긋치 고상과 근심을 면치 못함고 회기후에도 다시 죽음을 면
 치 못함게 되었습건만은 이와긋치 가련흔 스정어 랑군에게는 조곰도 통용지
 못함음고 디하로도라가옵기는 지극히 원통함과 이곳의 평성의 마음을 이혼장

뵈지어 다 말씀하와 영결로 못처옵는다이다。 평성을 두옵고 생각스록 원통함고
 할되옵는 것은 뒤동강변에서 리별함음든 일이오며 그 후에 우연히 서강 박보
 국집에서 잠간 맛나 뵈을 때 남모르게 흘니온 눈물이 얼마나 되었습는 닛가 그
 후에 평양에서 죽으려하는 이 몸을 구하여 주오신 비락관씨도 우연히 맛나 뵈
 옴고 이곳의 설은 스정을 낮차 처엿주었스오나 랑군 죄오셔는 그 말씀을 듯자오
 셧는지 아지 못함거니와 그후로 스오초편지마다 자서히 말씀하얏건만은 할
 장도보신일이 업다함오니 아마도 모르오실듯함오며 이곳은 도로혀 랑군의
 그도록 무정함심을 원망함음는다이다。 쓸티업는 말씀을 여러 번 하는 것 갓스오나
 간절히 원되는 마음과 산란한 정신으로 지향할 곳이 업스와 박명흔이 몸의 실상
 스정을 생각나는 티로 티강을 적스오니 다만 바라건디 이목숨이 업서 지기 전에
 은녕히 지니신다는 글사 말하아를 뵈옵고자 주소로 바라오며 필연코 랑군은
 이 세상 것천물결에 괴로움과 근심으로 지니시는 듯이 생각할 때마다 이곳의
 가슴은 일천조각으로 무여지는 듯함오이다 이곳은 스름의 철을 비로소 안이 후
 로는 첩사흔 근심이 몸에 떠날새가 업시 지니오니 전성에 무삼죄로 이고성을
 밧습는지 아참져녀으로 날아긋다 들어왔다함는 사막사치도 제락이잇고 쓸압
 해 서사잇는 초목사지라도 제절거음은 모다 각사잇건만은 이 몸은 엿지타인

성으로 려어나서 초목금수만도 못함이며 향날의 온화흔히사람을 보지못하고
 옥중에 못치여 잇는죄인이라도 괴흔이 차고보면 다시 도라오는 일을바라는
 마음이 잇스오되 이몸은 목숨이 업서지기전에는 이근심과 이설음을 이즐날
 이업스오니 이소정을엇지하면 좃스오릿가 향히못치너르신 랑군의 도량으로
 가련흔 이몸의 신세를 살피주옵소서。 이런말슴은 향는것이 도로혀 못그럽사
 오나 죽어가는 목숨으로 무삼말슴을 못함오릿가 본리의 김중비의게로 못사
 음은 이곳의마음으로 향은일이 안이옵고 원수를밧노라고 그리되온일이오며
 수삼년을 김중비와 부사간으로 지녀엿사오나 의정이라향는것은 향로도 두어
 본일이업고 날이갈사록 그얼골을보면 원수를 디흔것못스와 일홈이 너외간이
 라향엿습지 실상은 부사간 정의를 허락흔일이 업삽다가 향로는 그원수의 흉
 계에빠지와 몸을더럽히고 십년공부가 허스의 도라못스오니 이곳의 마음에도
 못그럽삽거니와 디향에가셔라도 이후에 랑군을무삼면목으로 뵈오랴향는성
 각으로죽기를 결심하고 디동강수에 몸을더젓삼더니 익운이 미진향엿삽던지
 맛참 그강에서 빅락관씨가 락시질을향시다가 잔명을 구향여쥬신연고로 다시
 구차흔목숨을 오날날까지 보존향엿스오며。 그날로부터 평양을 바리고 친부
 모의산에 의탁향여 오날날까지 지녀오니 김중비와 인연은 임의 쓴어 전지가

오리되엿삽는이다 그새에 빅락관씨는 이곳의 의리업슴을 절취함옵시고 본리
 부터 괴흔마음을 가지고잇는연고로 처음에는 리수일을 속이고 이제는 다
 시 김중비의게 덩절을 직히지아니향려흔이니 이와못흔 녀즈를 어디다가쓰겟
 나나 말슴향섯스오나 처음에도 랑군의게 그러듯큰죄를 지엇삽건만은 그시의
 는 죄가되는줄을 아지못함옵고 이제와서 비로소쳐닷스온 어리척은 이몸으로
 지금에 절기일은것을 엿지쳐닷삽는잇가 본리부터 어리척은 계집이온고로 산
 을넘고 물을 격향여 멀니 녀여다바리듯향엿스오되 무엇이랴 감히말함마디를
 못함옵고 죽은스름못치 잇삽건만은 엿더흔스름이 이몸을 불쌍히 녀이여 건
 저쥬고저향는 스름이업스오니 생각스록 지원향오며 랑군씩오셔는 이곳의 정
 상을 엿지알고게시옵는잇가 어리척은 스름으로 아지못함옵고 지은죄와 민첩
 한사람으로 알고도 일부러지은죄와 그죄상의 정중을 비교향오면 엿더흔편이
 중향다향겟습는잇가 어리척은 물건으로감히 이리흔말슴을 향는것은도로혀못
 그러온일이오나 빅가지천가지로 생각을향와도 다만 의심함옵는것은 랑군의
 마음이압는이다 티산이 문혀지고 하히가 마를지언딩 랑군의 순량향시던 천
 품으로 그와갓치 악흔죄업을 구향여 그길노발을 드러노으실줄은 실노몽상향
 든빛기오며 세상스름들은 모다랑군을 지목향여 악흔무리라향오며 원슈갓치

볼썽안이라 이곳은 서강박보국집에서 잠사 맛나 뵈을썩에 비로소 그말숨을
 들숨고 이곳은 멧칠동안은 싸로이 랑군의 선분을 위하야 눈물을 흘리고 지너
 엿습는다 랑군씩셔도 여러가지로 생각할신일이 잇셔너 그러함심인듯함오
 나 이세상의 스름이라함는것은 놀하졌다 나져지기도함오며 나졌다놀하지는
 일이잇스오니 아모조록 예전에 뵈읍던 리수일씨가 되여 주시기를 지성으로
 바라옵는다 이세상에는 랑군갓치 민첩지못흔 스름들도 놀흔디위를 엿스와
 명성이 혁々함음는디 무슴연고로랑군은 이와갓치 좃치못흔영업을 고르고 고
 르오셔 남보다 썩여는 지절을 진의중에 바리고저함시옵는지 이곳은 실노원
 동흔마음을 의이지못함음는이다 어리석은 이몸이라도 그썩에 마음이 잘못
 들지안이하옵고 랑군의 것들떠나지 안이하옵고 되시고 잇섯든들 그러흔의스
 를 두실썩에 즉시 간하고 말니여못함시도록 함엇스오련만은 임의 그릇된일
 을 지금 다시 말슴함은들 무삼 유익이잇겟삽는잇가 이곳은 제몸의 일평성을
 스스로 그릇쳐노앗슬썩이 안이오라 장리가 구만리곳스온 랑군의몸싸지 그릇
 쳤스오니 그칭각을함오면 눈에셔피가 흐르오며 무엇이라스죄함을는지 하늘
 이 두렵삽나이다 아못조록 이곳의 지은죄를 널니 < 용서함여 주시고 다시
 또 용서함음시기를 천만번바라옵는다 이곳은 그때에 무삼연고로 김중벽를

좃츠스오며 엿지함와 그말을 거절치못함엇스오며 또는 엿지함여 랑군의말
 숨을 북종치못함엇삽는지 이제일이러 그일을 생각함오면 일장춘몽과곳스오
 며 그때는 전혀말근정신을일코 일시동안은 악마에게 홀니여 제몸으로 능히
 제어치못함음고 절기여 스사로 비참흔운면을형하고 좃츠갓사오니 모도다 이
 곳의팔조소관이옵고 신운이불형흔 연고인듯함오이다 그때에 디동강에서 리
 별하고 어티로 가오실썩 랑군의분함오시든 마음으로 사나희의힘으로 이곳의
 목숨을 랑군의손으로 업시함섯드면 지금와셔 이런근심이 업사을것이요 만일
 그러치못함오면 랑군의손으로 이곳을씌우고 기쁜산중으로라도 다리고 가섯
 스면 지금에는 얼마나 신세가 다형함와 혼집안에서 화목히 지니고잇슬것을
 함오며 어리석은 이곳은 이렇듯 함상어리석은 석가만나옵는다 랑군이 이
 제라도 이곳의 허물을용서함음시고 피츠에 흥금을 푸와 화조일썩에 서로익
 그음고 전일의 디동강리별함음든일을 고담에붓치오면 그절거운마음이 엿더
 함겟습는닛가 세상도 귀치안습고 목슴도 중치안습건만은 다만날로 몸에셔나
 지안코 시々로 품속으로붓터 너여보는 보비는 당시에 랑군이두고가신 랑군
 의스진이음는다 이세상에 아모리좃타함는것을 보아도 눈에절거움이업스오나
 다만 랑군의사진을뵈오면 일만근심이 사라지옵고 다시 어렸슬썩부터 랑군과

지니여 오든 일을 생각하오면 희음업시 흐르느것은 눈물이음는이다 그러오나
 그사진이 여러히가 되여가음는고로 점々빛이변하여 가음는것이 앓갑사오나
 그사진쫓츠 목숨이 오리지못할사름의 보비인줄 짐작하고 그러함음인듯이
 곳이 죽어디하로 가을때는 그사진도 혼가지로 관속에 너허달나고 모친에게
 유언을 하였스오며 옥을일코 다시들을구하려호나 엇지못함음고 근심으로
 지니음는 이곳은 우연히 일전에는 랑군의덕에서 신시덕의일미인을 만나보음
 고 그미인에게 여러가지로 수치를당하였스오나 임의 이곳이 일허바린보비
 그녀즈의 수중에잇스오나 다시무엇이라 항거하여 말슴호오릿마 모다가 이곳
 의 잘못이오니 수원수구호오릿가 처음부터 그러호오신줄을 알았습드면 이곳
 이 덕에까지 갓슬리가 만무함을것을 이곳은 조곰도 저서호오정은 아지못함
 음고 도로혀 랑군의 근심을 씻치고왔스오나 김히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라음
 는이다. 이외에도 함을말슴은 산과바다갓스오나 혼이업는 이곳의 마슴을 지
 필을받츠와 엇지다호오며 단문호 필법으로 무엇이라 형용하여알외을잇마
 운은시진함음고 잡은손은 썰니와 원통호 이마슴을 다말슴못호오며 영결로알
 외음고 붓을더지오니 원컨디 랑군은 너즈 존테를 보중함음서고 지원극등호
 게 디하로도라마는 이곳을 불상히 녀여주시옵기 유명디중에서 바라음는이다

오월이십오일

목숨이조석에잇는심순의

상장

대륙장 富豪의亂行 (부호의亂行)

그런하다 이순의수심이여 | 슬픈소회를 지필로 되신하여 의원하기를 심오츠
 에 일으릿더라. 그러나 수일은 처음에는 그릇하여 혼장을드더보았스나 그후
 로는 편지마 일을제마드 손에접함기도 불결히녀이며 더욱 그녀즈의 형실이
 단정치못함을 더러히 녀이엿더라. 그러나 이날아침에 예전부마 전호고마는
 순의의 편지는 우연히향하는마음으로 피봉을뺏고 혼발이 넘는 편지를 반이
 나 지나어보드마 혼연 편지기 어렵도록 마음이 요동함으로 스스로 수일은
 즈그의 심약함을 붓그리고 또는 자책한다 마음에 잇는회포는 혼가지도 루락
 지안이호고 모다 그리여잇는 순의의편지라 처음에 심여줄은 글조도 분명호
 고 문투도 알기용이하다니 심여줄을 지내인후부터는 점점 글시기가 어지러워
 지고 글도게속하여 의미를히셔하기 어려우니 그글즈와 구절에도 가히 그마
 음의 어지러움을 분명히 나타내엿스며 만일 이문스와 又혼진디 순의는 드터
 여 죽임에일으던지 그것치아나호면 성광(成狂)에 일으리다. 수일은 보기
 를다호고 다시 고기를 드리워 침음다가 겨을니 손을늘니여 무릅우에 싸인
 편지호 반을찌저들고 우연히 어나곳을바라본다 혼연몸을일어 썰노나려스려

하다가 다시 몸을 굽혀 방우에 있는 편지를 집어 손에 들고 정전에 슈플스이로
 서서히 왕리하여 흐거름에 한번 찌르고 두거름에 두번 찌르며 나무그늘에 들
 어서서도 찌르고 먼산을 바라보고 찌른다 거름을 멈추고 찌르고 거러가며
 도찌즈며 찌르고 찌져 다시 두손으로 부비며 가다가는 다시 도라오고 섰다가
 는 다시 거름하여 부스러가 조회는 손스이로 찌러지고 굴근조회조각은 손바
 닥안에서 환약갓치된다 이렇듯하다가 수일은 거름하기도 괴로운듯시 그늘아
 리에 나무들의지하여 먼산만 정신업시 바라보고 서서있다. 홀연 방문 열니
 는 소리가 귀에 들리며 신발을 신을고 수일의 압호로 향하여 혼손에는 신문지를
 들고 웃는얼굴로 오는스름이잇스니 이는 전일에 동문밖 처량암에서 옥향과
 혼가지로 위력호복숨을 구하여 그후로는 부부가 혼가지로 슈일의 집에 의탁
 하여잇는 최원보라 수일은 비로소 내의정신을 차리며 급히손에 남아 잇는편
 지를 혼구석으로 멀리더지고 그늘노젓차나아오며 「나는발셔 가가로나간줄알
 았더니.....그러면 내방으로 들어가서 심심한디 이야기나 합시다」 하며
 수일은 압혀서 방으로향하고 들어간다 「네 가가역스도 거운스스락성이되
 여가고 맛참 공일이되었기에 일쑤들다려 오늘 향로는 편이쉬라고 하였습니
 다 회사의일은 당신덕택으로 아조어제게야 무스타첩이 되구요」 회사라함은

전일에 최원보가 지비인으로 잇던 무역회사를 말함이요 가가역스라하는것은
 금번에 슈일이 가 본분을내여 최원보를식이며 식로이지전을 설시하는데 덤포
 를 수축함을 가라침이라 「아무렴 그리야지 잔혹 휴가하는찌도 잇셔야지 스
 룸의몸으로잠시도 쉬일찌가업시 로력만히셔야 엇지견디겟소 그리기에 나도
 항상 옥향씨다려하는말이잇지요 최원보씨는 너모스무에 렬심하여서 몸이편
 하기쉽겟다고.....」 「말씀만들어도 고맙습니다 당신의 그와갓치 천절하신
 마음을 생각하기로 엇지잠시인들 현히놀고잇겟습니가역스가 슈일내로 찾이
 나가든 전부터 부탁하시던 류필균(柳弼均)의일도 속히츠져서 되도록 운동하
 여보겟습니다」 최원보가 무역회사의 지비인으로 잇슬썬에 그회사서괴로잇든
 류필균은 여러사원중에서도 그중지조가 뛰어나고 스무에 근간함으로 최원보
 의눈에들어 년구한다른사원보다도 류필균을 더욱스랑하던터이라 그럼으로
 류필균은 최원보를 공경하기를 스승갓치하고 바라기를 부형갓치하며 또는
 류필균의 부모도 최원보에게 그아달을 성인케하여달라고 썬스스로 부탁함으로
 서로 조조왕리가잇서 정의가 친척이나 다름이 업섯더라 그외에 류필균은
 정옥(貞玉)이라하는 아름다운미데가 혼스름이잇스니 혼약을 미졌던신랑서
 아남(徐雅男)이가 불행히 김정옥의 독슈에 걸니여 스서위조죄(私書偽造罪)

로 일년륙개월중역에 처후후로 그부모는 정유을위하여 아남에게 혼약을
 파의가얏스나 신부되는 정유은 임의 스유까지밖은 남편을죄인으로 가서있다
 고 엇지박절히 언약을 억이느냐하고 죽기로쳐하고 다른곳으로 출가안이하려
 하고절리를 지히인다하며 서아남의 모친은 아달의 원슈를갑고자하여 밋천병
 이들었다가 인하여 김정연의 집에불을노아 김정연의 부수를래여 죽이고자
 기도 스스로죽은일을 수일도 자서히 아남인고로 수일은 최원보로 하여금
 스이에들어 서아남의 인연을 원만히 미져주고자 유소로 근심하든바이다. 성
 각건디 목숨을 앓가지아니하던 최원보의 부수간 신성현 사랑을 진심으로 감
 동하던 청량암 향로져역에 수일은 암혹현 철야에 일도광명(一道光明)을잇음
 갖하여 수일의 가슴속에 어름갓치 차고 곳에 밋치엿는 물건이 점々 싸스듯
 하여가고 밋천명어리는 풀니여 이제다시 서아남의 공척현정상을 구하려함
 이라 그러나 슬푸는 순이에게 향현원한은 어나씩든지 풀이기한이업고 이제
 다시 순이의 누웃침이 느졌슴을 한하여 처음부터 옥향과 정유의 두녀조는 혼
 조각지하던 마음을변치안이함을 경모(敬慕)한다. 수일의 침음하는 모양을보
 고 이윽도록 말이업던 최원보는 수일의 고개들기를기다리며 비로소말을한다
 「오날은아모보실일이 업슴닛가」 수일은 무슨말에 무삼일이 잇는가하여「일이

잇다하면 잇고 업다하면 업겠지만은 요스이는 공연히 심스가 산란하여서 일
 이 손에잡히지 안이하는구료」「만일 여가가 깨서면 잠간 보여드릴것이 잇슴
 니다」「무엇인지 봅시다그러」「불가불 보셔야 할것은안이요 심스한테 소일
 노나 보실것이올시다」최원보가 보이고자하는것은 손에들고잇는 신문이라
 최원보가 손으로가르치는 제목을 수일은 드러다보더니 홀연눈살을찌푸린다.
 그신문을 저서해보건디 데슴면 비두에 부호의란행(富豪의亂行)이라 제목하
 고 비여줄의 일은는괴스는 그내용을 디략말할진디 김산은행평양지덤장 김중
 비는 년천호위인으로 은희의중임을 맛닷스나 품형을 단정히 가지못하고
 화류계에 출몰하여 향즈부터 그곳기성의 옥향을 첩으로숨고자한다가 여일치
 못하고 다시다른곳으로 방연을곳치여 그곳에서 가장유명현 모란이라는 기
 성을 일만원의 돈을허비하여 간신히구실을 썬이였다가 중간에 이론이생기여
 다시오천원돈을더쓰고 비로소 작첩하였는데 김중비는 본성이 부랑하여 은희
 을빙자하고 여러스름의 금전을소용하였슴으로 처권등이 김중비의 스실을
 탐문한즉 은희은 임의파산할 디경에일이고 부치는 기성을 작첩한 이후로도
 슈십만원에 달하였는고로 여러처권자들은 김중비의행위를 미움게하여 스기
 취재범으로 당디디방법원에 괴소하였는디 목하에 임중히 취조중이라 하였는

티 슈일은 이와 갖치 괴스를 보기를 다한 후 비로소 얼골에는 비웃는 웃음을 띄우며 말이 없다. 「세상에는 별밋친놈도 다잇지요」 하며 최원보는 고개를 들고 웃기를 마지 아니한다. 「밋친놈인 줄이야 이제야 안것이 아니지만은 그놈이 본 리에 심지도 곱지 못하든게요 그려 이 신문을 옥향씨도 보았쇼」 「아주 못보았 습니다 인제 불너서 뵈오겟습니다」 하고 최원보의 불은 소리에 옥향은 급히 대답하며 슈일의 방을 향하여 온다. 아참에 늦게 단장한 얼골은 조반 후에 더욱 화의를 띄워 웃는 얼골로 두팔을 문지방에 집고 방안으로 드러다보며 「엇지 불으셨셔요」 최원보는 대답지 아니하고 한편으로 안질자리를 내여 늦코 옮겨 안는다. 슈일은 압해잇던 신문을 옥향의 압호로 내어 밀고 빙긋이 웃으며. 다른 일이 아니라 하도 재미잇는일이 신문에 낫기에 그것을 좀보라고 불렀소」 「무엇이 그것케 재미잇셔요」

「엇더든지 한번 내려보게나 그려 김중비가 인제 할 슈업는 디경이 되었스니……」 하며 최원보는 손가락으로 그 대목을 가라친다. 옥향은 신문을 들고 심여 줄썩이 나스려보더니 참지 못하고 입을 열어 꾸짖는 소리로 「앗다 시원도 하지 제가 어 티를 가면 기성들에게라도 환영받을 줄도 알았든가 돈은 쓰면셔도 설음은 혼 쯤밧고 단나지요 못도 낫지……」 「앗다 남의 욕은 그만하고 그아리를 마자보

아요」 「여보 나는 언분이 셋들이셔 얼는 불슈가 업스니 보아서 들너 주구료」 최 원보는 신문을 밧아 들고 크게 소리하여 넘는다. 옥향은 그 열혜안자 귀를 기우리 고듯더니 옥향의 얼골은 희던 빛이 변하여 붉어지며 분기가 식로이 일어나는 듯 하다. 「여보 옥향씨 그리도 돈이라 하는 것이 조흔 것이로구 김중비에 게로 첩이 되어가는 기성이잇스니」 「그리기에 저는 일상 미운 것이 김중비의 돈자랑이 야요 걸 밧으면 돈부터 압할 내세우니 싸요 세상스름치고셔야 누가 돈 싣타 하는 스름이 잇겟습니가 만은 우리 평양 기성들은 돈보다 스름을 더 본답니다 이번 에 김중비에 게로 첩되어간 기성의 모란이로 말슴하면 필경 제 마음으로 혼 것이안 이라 저의 부모나 그러치 안이 하면 식주인과 무삼의 론이 되어서 로욕만은 늙은 이들이 돈에 눈이 어두어셔 그리 할 것이지요」 「항필 늙은 스름의 숭만 불 것이안 이라 기성들이기로 전혀 김중비에 게 마음이 업스면 낫슬리가 있나 돈에라도 혼 나였기에 그러 할 것이지」 「그말씀은 올흔 말삼이 올시다 무엇에든지 혼난 데가 잇기에 잔 것이 지오 만은 마음에 흘너서 간다는 것은 밋을 슈업는 말이 올시다 단 지 돈에 눈이 어두어셔 술 것 혼 마음으로 낫다가 나종에 그 정신이 셔어나고 보 면 후회 막급이지오 제가 전에 기성 노릇 할 썩에 이 신문에 난 일과 낫흔 스름을 보았 습니다 이런 계집의 마음으로 돈만은 스나 회의 날마다 호강으로 지내는 것

이 불어워서 실정으로 말을 하면 그 스름에게 정이라 하는 것은 꿈에도 업원만은
 단지돈육심의 혼변만 그 스름하고 살아보았스면 하는 스름도 보았습니다. 그러
 치만 막이 그 스름하고 갖치살게된후에는 멧칠이 가지못하여서 허여집디다
 멧십만원가진 부자의 안히가된들 그돈이 다 제것이겟습닛가 가령된다하드래
 도 그돈을무엇함닛가 하로 밥두그릇이면 그만이오 아모리 팔진육미라도 세
 번만연하여먹으면 코에서누린늑음식이 나느법이올시다. 그렇게 허보지못할씨
 는 부럽기도하고 육심도나다가 제가 인제그디위를당하여보면 그씨는 스나희
 의 경축을 다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 본디정이라 하는것은 조곰도업는외간에
 점사보이는것은 스나희의 흠절뿐이올시다. 인제 그리고보면 그 스나희가 점사
 마음에맛지안코 실여가는것은 스름마다 인정은 일반이지오 그씨는 돈도실코
 호스도실코 마차가무엇이나 인력거도 그만두어라 하고양금이나 거문고 할아
 로 제마음디로 기성노릇이 다시하고 심히저저오 그지경되면 나종에는 도로
 제본식을 바리지못하고 도로기성으로 나오느 법이올시다. 「아무렴 그러하지
 육향씨의말이 석을은말이오 녀편네라 하는것은 공연히 허욕이만아서 남의부
 귀하는것을 부럽게도 녀이고 시기도하는물건이르. 녀편네의 허영심은 엇지할
 수가업서 그런마음이 혼변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녀편네는발서 볼닐드 본사람

이원드. 그리기에 조과의 마음을졸속히하려고 무슨짓이든지 조곰도붓그리지
 안코 하는구료. 그런고로 녀조로죄를 짓는스름은 열사름중에 팔구명은 으레
 허허영심에서 시초가난일이니 그것을두코보면실로 계집이르 하는것은 밧을
 수가업는것이야 육향씨가 지금압해 안즈엇지만은 기성이라 하는것은 그것이
 할영업이라 하야도 가흔터이니싸 몸을사가는 사름이잇스면 팔녀갓다가셔로
 뜻이맛지안이하면 다시 기성으로 나오기도하고 다른사나희를 엇어살기도 허
 셔 들어가든지 노오든지 용이하지만은 만일여염집 녀조갓흐면 엇더하겟소
 가령여의 엇더흔쳐녀혼아 이있다고혹시다. 그런데 그쳐녀가 깃히정든 사나희
 와 부사가되어서 화목하게 지내려다가 돈에눈이 어두어서 그사나희를바
 리고 다른남편을엇어가면 멧칠이든지멧히든지는 영화롭게지디겟지만은 처음
 부터 부사간의 깃흔정이라 하는것은업섯스니싸 육향씨의 말과갓치 점사 그사
 나희의 단처만 눈에띄우기 시작하는것은 기성이느 여염가 녀조는 그마음은
 혼가지겟구료. 조- 그리고본즉 녀염가녀조라 하는것은 혼변남편을 엇으면
 좃든지 언잔흔지 일평성을 그사름만 직하고 잇는법이오 기성과갓치 그사나
 희하고는 살기가 실으니들이가갓다. 홀슈도 업는일이지..... 「을혼말습이
 을시다. 붓그러운말습이지오만은 저의네의기성이라 하는것은 말하즈면 천흔영

업이지오 어위천호장사를 할는바에야 이것저것도라 볼것이무엇이온닛가 저
 산만은 사노회를 엿어가서 저호고집은 노릇은 마음대로 다놓다가 비위에틀
 니면허여지기는 의례하호는법이올시다그려 이신문에난모란이도 김종벽갓흔
 스나희에게로 가서 평성을 누리려고 마음먹엇겄습닛가 기성이라호는것은
 물건과갓히서 팔고스고호는것이저오만은 여염가 녀편네야 호번시집가면 좃
 른지혹호든지 그티로치내노것이지 돈잇슬때는갓치살다가 돈이업셔지면 비
 반호는일이 어디잇습닛가 처음부터 정든님을 바리고 지물을쫓츠간것은 본리
 의제잘못이니스 나쥬에 그스나희가 실트리도 소용업는일이저오 정세는 불상
 호지만은 엿지혹수잇습닛가「올치 올호말이오 저작저얼이니스 정말 엿지혹
 슈업지」진실로 일은바 저작저얼이로다 수일은 최후에 이와갓치 마음을 결
 단호의 아츰에 순의의 편지를 본후부터 마음을 수구로이호야 이리성각 저리
 성각호며 유에미결호든 가슴을 호마디의말로 회결호야 바리는 호숨을짓는다
 슈일의못는말과 탄식호는모양의 남의일과갓치 심상히 못는일이안임을최원
 보는 호편에 감안이안저 처음부터 슈일의과석을 살피다가 무슨성각호는일이
 잇는듯시 무릅을너여밀고 압호르 나안지며 「올치안은 말슴을 못는것갓습
 니다 만은 당신이 아신량반중에라도 그런부인이잇습닛가」웨 그리호시오

호며 슈일은 눈을 동그렛케호고 최원보의얼굴을 바라본다「무슨 기쁜리유가
 잇서서 못는말슴이아니라 지금 말슴호시는모양을 감아니뵈오니사 전슈히 남
 의일을 가르쳐말슴호시는것과 다르다그려 요전에 청량암에서도 저의 신체
 이약이를 드르시고 말슴이 나는 남의일로 성각지안노라호신 말슴도잇섯거니
 와 간사히 옥향에게도 그리호는치로 말슴호시드란 말도들엇는고로 저의 너
 외는 모여안지면 쓸티업시 무익호 이약이만호고잇섯습니다 저의몸들도 쥬체
 호지못호는위인이 쥬저님께 남의걱정을 다호고성각호실는지는 모로와도저의
 몸이되여서 말슴호고보면 당신은큰은인이올시다그려 그리호는인이 무슨사정
 이잇는지 항상패락자못호게 날을보내시는것을보고 저의인들 엿자마음이 좃
 케습니가 저의힘으로 될일갓호면 천마의슈구라도 스양치아니호고 은혜의만
 분저일이라도 갓호는가호오니 말슴호시드래도 크게 상처되는일만 업거든 말슴
 호야쥬시면 근심이라도 함씩는아호면 조호듯호오이다 저의는 디강성각호기
 를 당신씩셔도 김종벽에게 무슨볼패호감정이 게신것갓습니다 슈일은 항상
 호을노 번되호고 입밖게 내이자 아니호는 병근(病根)을 최원보의부호는임
 에 철팔분이나 짐차호비되얏더라 정이 듯러운 최원보의부호는 진실한 마음
 으로 은인을 성각호야 슈일의 일인일동에 쥬의호기를 깨을니호자안음으로

갑히 마음속에 감추어있는 비밀한사정을 은연히 추척하였더라. 수일은 얼골에 수심이 가리우며 다시 고기를 드리운다 「지금 저의 남편도 말씀하니 다만은 저에게 말씀하시기로 밤게 소문니 일념려 난업고요. 듯기로 저의가 무삼힘으로 근심을 더러 드릴슈야 잇겟슴잇가 마는 혼자가슴만 티우시느니 보다 저의갓은 스름의게라도 말씀하야 주시면 잠시라도 가슴이 시원하시지요」 두스름을 좌우로 건너다보는 수일의눈에는 눈물이 가득하고 여있다 「그디들은 항상 말할 때 은인々々하나 나는 그디네를 내은인으로 알고잇소 니가 그디네를 구하여 줄것은 돈만잇스면 누구든 자할일이요 그디네를 돈보다 더 귀중함스름의 성심이라 하는것으로 임의 죽엇던 내마음을 소성케하여 주어셔 아모것도 도라 보자 아니하던 고리디금자가 비로소 보롱스람과 곳치 인정도소스나고 눈물도 흐르오 요전에 도 옥향씨다려 말한일이잇소 스름의 곤한일보기를 제가 잘되 는것보다 더 조와하는 고리디금자리수일의 마음으로 무삼일로 그디의 목숨을 구하였는지 이후에 저저히 알날이잇슬것이요 내가 본티 엇더함스름인지 츄말할날이 잇겟다고 하였드니 맛춤 오늘이 기회가 조흐니 너스정도 은취치안코 저저히 하리다. 수일은 어러부터 오늘々 저저 지내여은리력을 이시도록 순서를 따라 리약이하는디 최현보의부사는 정신을일코 듯고잇는디 남녀 두스름은씩사로 눈물을 흘린다

데철장 病床 (병상)

쓸압해 노여잇는 영산홍 두어분은 넘어가는 헛빛을받아 반스(反射)하는 붉은 고운이 쓸아리방영창에 선연히 빛초이는데 그방안에는 머리를호르리고 파리할얼골로 몸에는 이불을 들녘스니 그모양은 이올어가는 샛송이가 다시 바람에 쓸니여 고기를드지못함과 방불하다. 그녀저는 련의에 병들어잇는 심술이요 그방은 학성시뒤에 거처하던 리슈일의방이라 전일에 수일은 장티에 희망을가지고 학문에 열심하던곳이 지금에는 보기에려운 정랑(情郎)을 생각하는 순이병실이 되얏다. 중환병이 들어목숨이 쵸셔에 잇는것은 아니로티 몸을일어 지리에떠날힘이업고 날노 파리하여가는 얼골은 남의눈으로 보기에는 크게병든 스름과다름업다. 그부모는 날로 근심하기를 마지안이하며 약을 지성으로 권함의 순이눈은 마음으로는 효험이 업슬줄이나 부모의마음을 거력하기어려워 날로 의약을 겨을니안이하다 그러나 병중은 엇더한명의 국수가 올지라도 티중투제하는약용이 관역을 등지고 활을 쏘는일보다도 무효할지로다. 주야를 물론하고 호을노방안에누어 스름을 티하기실허하며 잠든것도 안이연만은 눈을뜨지안이하고 다만 마음으로번뇌할뿐이라 낮이되면

아참부터저녁까지 호을노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때때로 호흡을지으며 연고업
 는 눈물흔적이 보이미 모르노스름들은 병을하여그려다출지라 그러나 밤이
 깊고 인적이코호출때는 업던정신이 서로온듯시 몸을일어 처상을향고 무엇
 을 길고길게쓰다가 잔사이 그압해 누가잇난듯시 이악이도하여보며 또난 눈
 물을흘리며 조희를저실때도잇다 이렷듯다가 밤이 서여갈때에 일으면 몸
 이 숨과갓치 파곤하여 자리우에 쓰러지면 혼사침사하여 정신을추리지못할
 다. 이와긋치 잠을일우지못함이 쇠약한몸이 신경과민(神經過敏)이되어 정신
 병(精神病)이되엿다하여도 가할지라. 순이도 저귀의병중제가 그러함을스스
 로 짐작하고혹시 이몸이 밋치어나안이할가 의심하여 호을노 겁한다. 원리
 부터 효령이 업슬이라 짐작은하였스나 그리도 마음에는 기다리는것이잇는연
 고로 앓갑지아니호를숨을 지금까지 보존하였스니 아모조록 그기드리는것이
 도라오기까지는 이몸과 이마음이 잇기를식축한다 그러나 그바라고 기다리
 는 물건은 무엇이뇨? 한번은 죽기로 마음을 결단하고 그사름의눈압해서
 회개하고 용서하기를 바랏스며 정성을다하여 천만가지로 원정호편지도 임의
 심여차에 일으렷건만은 무정호 수일의마음은 천만근되노 바회와갓하여 움작
 이기어려우며 이몸의기다리는바는 돌이 말을하여어름이 더울기를 기다림과

다다 생각할때에는 순이노 차라리 일즉이 죽고자하는일도 잇섯더라. 다시
 또한가지 생각하는일이잇스니 수일의 무정호는 다만 이몸의지은죄를미움게
 녀이여 그러할뿐아니라 전일에 과상은 녀조한사름이 나에집이나 다름업시
 회동하는것을 수일의집에서 보았노고로 혹은 그녀조로인하여 이몸에 향하는
 정은 살아지고 다만 미워하는다음만 남아잇슴이안인가 이몸이 아노바와갓치
 수일의 마음은 온후하고 더욱이 순이에는 동정아만은 사름이러나 지금에는
 이다지 무정호도룩 마음이 변하였는가 이와갓치 생각할때에 순이노 저귀의
 죄가얼마나 중하였스며 저귀의죄로하여 남의마음까지 상하여노은것이 얼마
 나 만앗는자 다시 도라볼여가도업시 다만 수일의무정호를 원망하며 그녀조
 의 방조함을 미워하여 슬픈마음과 투기스러운 생각에 어지러운 정신을 수습
 지못한다. 그러나 수일의 오늘날 저렷듯변하여잇는 신세를 다시 생각하면
 가엽고불쌍한생각은 스스로 일어나 원망하던마음은 업서지고 수일로하여금
 오날날 신세에 일으게호출입은 모다 내몸의 허물로 조쳐야 저귀의요소가
 근심과 고통은 저귀의죄로 벌을당함이라하며 다시 수일로하여곰 전일의 수
 일을 만다라놓는것이 너몸에척임이라고 순이노 생각하였더라. 이와긋치 쓸
 티업는 근심을 할때마다 근심우에 근심이 더하여 거의성광에 일을지경이라.

순이는 다시 저리에 누어 흐트러진머리는 얼굴을 반이나 가리엿는디 피골이
 상령흔 얼굴에는 혹은 불근괴운이 올났다 또는 나리엿다하며 간사히 들니는
 것은 흘숨이요 비껴머리에 흐르느것은 눈물이라 이때의 그모친은 그약그릇
 을들고 고요히 문을열고 들어오나 순이는 조곰도 아지못하고 누엇는디 모친
 은약그릇을 엮해놋코 순이의 모양을 이윽히 보다가 홀노 눈물을저우며 순이
 의어깨에 손을다이고 감안이 흔들며 울음에 섞기여나오는 목소리로「이……
 …이애 김……김집아 약 가져왔다 어서 일어나 약 먹어라 응 잠들었니……」
 순애는 흘연 눈을 뜨며 그눈에는 노흔괴운이 가득하야 「어머니는 일상 김집
 〈〉하시니 나는 그소리듯기실소 그러케 그말은하지말되도 리흔서지흔후에
 도 그럴말슴만하시단말이요 그말심만 뇌귀에들녀쥬지안이하면 약보다 더낫
 겿소」하며 순애는 다시 눈을감고 벽을향하야 도라놓는다 모친은 무료함을
 의이지못하야 흐르던 눈물은 어나뎃업서지며「아이고 뇌가 이졌구나 그져하
 은어미가 정신이스나워서 그리하엿구나 어서 약 먹어라 뇌가 저리하면 나면
 저쥬어야지 저셀을 이흠은 부모다려엇지보라느냐」 순이는 마지못하야 두팔
 을잡고 일어나서 별사 쉼니는 손으로 약그릇을 붓잡으며 슬어저가는 목소
 리로「어머니 아버지는 어디가섯소」네병으로하야서 의원보러가시나보다라」

「아이고 어머니 나는아모리 생각하야도 목숨이 오리지아이할가보오 웨 썰지
 식은나으섯소 부모게도 불효요 제신제도 가련하지요」말을 맞치고모녀두스
 림은 서로 손을 붓들고 눈물만 흘니는디 넘어가는 허는 산봉오리허가리웠고
 방안은 점사 어두어 두스름의 심사를 더욱 슬푸게한다

데팔장 成狂 (성광)

슬푸다 순이는 드디어 성광(成狂)하엿도다. 삼월십사일 교묘한달아리 티동
 강에서 리수일을 바라고 순이는 김중벽에집으로 출가흔지 임의 룩년이되얏
 리라. 순이는 김씨의 문공의 발을드려놓는날부터 혼갓결심한마음이잇서 다
 시 슈일의 허락을 듯지아니흔후에는 몸은 엷더흔스름의게던지 허락지안이하
 더라하고 늘로 수일의 소식듯기를 기다리나 그러나 수일의 소식은 묘연하야
 지고 다만 허를싸라 절거움은업서지며 더하야가는것은 뉘웃침이요 춘풍추우
 에 다만 수심을 거듭하야 루흔(淚痕)이늘노 쇠로우며 일시는 티동수의 몸을
 더디다가 여의치못흔후 천가도로와 병든몸을 부모의게 의탁흔후로부터는
 더욱 중세 험악하며 우수스려가 몸을 썰늘스이가 업시 드디어 잠을일우지못
 하며 조석을입에 다이지못하고 정신상(精神上)에 갓갓히 이상(異常)을 더하
 야 입으로하는말도 전후가 착란하며 쉼업시 우스며 쉼업시 체음하고 그동작

의도 변환이 무상하여 임의 일개 보통병인으로 인정치 못함에 일었더라. 순이
 난 드디어 총독부의원 정신병환자실의 수용환비되었스며 병명은 「메랑고리
 아」의 급성이리라. 심신의무는 주야로 잠을 일우지 못하고 병인의 간호를
 자극하오니 순이의 정신은 임의 후터져 보아도 분간치 못하며 들어도 희석지
 못하고 사라잇는 시례와 같은 순이 버개머리를 썬나지 못하난 늙은부부의 상심하
 난 모양은 모로난 사람의 눈으로 보아도 눈물흘리지 안이 할스름은 엽슬자라.
 순이는 간혹 괴운이 나릴썬난 진정하여 전알과 처치 고요히 잠든 모양을 지었
 다가 흥연괴운이 올으면 얼굴은 술의 취한 사람과 갖치 붙어지며 다만 입으로
 부르난 말은 슈일의 일흔이라. 처음에 병원으로 입원할때에는 의사에 말이
 숨사개일만 치료하면 쾌하니 나으리라 하더니 날이 갈수록 점々더하여 몸이 더욱
 쇠약하여가고 증세는 만성(慢性)으로 향하여 때々로 기운을 수습지 못하고
 혼미하여 자리에 몸을 바리엿다가 증세가 발작하난때난 얼굴에는 무삼두려
 운물건이 음습하여오는듯이 겁하는 모양이 보이며 몸을 쥬체치 못하여 후터러
 진머리를 두손으로 잡아쓰드며 불은지々며 우는모양은 사람의 눈으로는 참
 아보지 못할지라 이러할때에 순이씨 일은는바는 모다수일의 이약이라 그두려
 위하는것은 수일의노흔얼골이요 슈일의개티흔조기의 죄목이며 그 슬허하는것

은 조그히물이요 조그의개티흔수일의원망이라 하는말뿐이요 또는 흥연 슈
 일이가 조그를다리러왔다하여 깃거하며 혹은 슈일과함가지로 가갯드나며 문
 밖으로 뛰어나가려하여 웃기도하고 울기도하여 정경도 가궁하나 한편으로는
 두렵기도하다. 이와 처 증세가 발작하는때적고 진정하는때가 만흐나 진정
 할후에는 오히려말근정신이업고 다만 울々침침하여 푸른얼골과 파리흔몸은
 거의 인사를세닫지 못하며 의사와 간호부가 무삼말을 물어도 결코 입을버리
 지아니한다. 그러나 약이나 음식을 권하면 대답이업셔도 다만 덤두흔뿐이요
 주야를 썬는지아니하는 모친에게티하여는 어린아희와 조곰도 다름업시의복
 을입는것이든지 미음을마시는것이든지 모다 모친의 손을 기다리며 그러치아
 니할썬에는 한구석에머리를숙이여 의지하고 조용히 안자잇스나 만일 남의위
 로하는말을 들으면그말이 감축된결과로 반다시 발작되는고로 병원에서는 문
 병하는스름을금하는터이라. 모친이 순이의 가슴에 땀치여잇는것은 수일의일
 인줄을 알며또는 증세가 발작할때마다 부르는것은 수일의일흔인고로 엿지하
 면 수일을흔번맛나게하여 그원이나 흥번풀어주고조간절히 생각한다. 스람
 하는 녀석의병을 근심하여 요사이로 더욱 희여진머리는 심신의부부두스름이
 라 모친이 잠시도 순이를 썬는지아니하며 심히는비가오든지 바람이 불던지

반다시 호로에 혼번식은 병원에와서 반일동안은 순이의병의증상을 의스에
 게 의론하여 순이의 동정을살피는터이라 순이에 모친은 항상 말하고저하다가
 조용한음을 타지못하였다가 이날은 심력을 병실에서 조용히 맛난것을 괴회
 삼아 비로소 입을연다 「여보 영감은 저애병을 엇지알고게시오」 「엇더케알다
 니」 하며 말하는의미를 알아듯지못하는 모양으로 안희의얼굴만 바라본다 순
 이는 악가부터역시 그 증세가 발작하여 방안으로 도라다다가가 이제야 비
 로소 진정하여와상우에 몸을바리고 자는듯시 누엇는듯 모친은 혹시 잠이느
 들엇는하여 잠이써이지안도록는 작흔목소리로 「글세 저모양을 좀보오 영감
 은 마음에잔임치아니호오」 「엇저하여서 불상흔것같이 업겟소 창자가 쓰어지
 는듯호오」 「영감은 그모양으로 잔잔히 보시지요만은는는 주야로 그모양을
 보고잇스니 그마음은 엇저겟소」 하며 눈물을 진난다 「그저 우리너외의팔
 조소관이저 보는아니보는 마음은 엇저 잠시인들 노이겟쇼」

「하필을에와셔 혼나트식을 이모양만다라노을줄은 몰나트구료」 심택은 이욕도
 록 티답이업시 다만 류리영창으로 먼산을 바라보고 안져있다 「지금 그런말
 을호면 무엇호오 설도 불상호지만은 모다 우리팔조가 괴박하여 그러호지더
 말호를것잇소 비가 일상호는말이지만은 우리집안에는 전부터 실성호스름은 업

스니싸순애도 병으로호여져잠시 그러호것이지 정말실성이야 호겟소 하여
 름이나지니고 초초가을이되면병도 좀 낫겟지 너모 근심호지마오 우리가 근
 심호다고 안이나을병이 나을리도 업슬것이요 이병원에는 유명호의스가 호아
 들이안이니 의원지휘호는 터로만호고잇스면 나을셔는낫겟지 마누라도 일상
 이러케 붓들고만 잇슬수가잇소 호로잇들에 나을병도안인티 초라리저애는아
 조병원 의스에게 맛기고 멧철잔동정을보아서 마누라도 짐으로긋다가 호로에
 호번이든지 잇들에호번이든지 와서보면 조치안겟소」 「티체 영감은 일상 그
 러케 늘어진 소리만호십디다 여름이지니고 가을이되면 낫겟다호니 기애가
 저모양이되여 가지고 가을셔지 곳 살아잇슬듯호오 살아잇다호드리도 병은
 점々더호터이오 의원의말도 아마 곳치가어려운 모양입디다 그러호니 조곰
 이라도 병이 더호기전에 엇더케든지 히쥬어야지 그러치아니호면 필경밋쳐서
 죽을모양이니 엇저호면 좃탄말이요」 「글세 나도 그런념려가 업는것은안이야
 의원의말도 병증세가 호스키호치호모양으로 오리되면 티단이 워티호겟다고
 호기에나도 글노호여 큰 근심이요 그러호나 화타편작긋다는 의스들이 그러
 케말호는티 나다려 엇더케호라니 비가엇저호단말이요」 하며 심택은 슈미를
 썩기고 수건으로 이마의호르는땀만 조조씻는다 호날은 눈이부시도록 청량

항며 쓸압해 나무가지에는 락암이 소리가 비로소들나 아즉도 삼을홀니도
 룩 더움에는 일이지아니호엿더라 멀니 겨우여잇는 시료실(施療室)에서는 여
 러환자가 요란히 출입하는 소리 세사로 바람을 싸라들니이다 「엇더케하시라
 는 것이 나는 다른말이 아니라 저애는 병중에 정신을물나도 노상 불은것은
 리슈일이니 엿더케든지 호변만 슈일을 맞나보게 하여주엇스면……」 요
 스이로 순이의 모친은 간절히 말하고저하는바는 이말이라 신탱은 그말들을
 은후에는 문득 길게호숨을지으며 고기를숙인다 늘세 앗가도 순애가 리슈일
 의 일흠만 불이지아니합티싸 그러케싱각을하고 보고십어하니 호변보게호엿
 스면 저병이 혹시나올는지아오」 신탱은 오히려 고기를 들지안이호고 이윽도
 룩 침음하더니 호연드는얼골에는 눈물이 양협에 저々있다 「아! 지금이모
 양이 되어서 호란호들 후회막급이요 모든일은 다 니잘못이지 누를호호겟소
 쥬저석을 이모양만다려노은것도 내허물이지 김중비라하는자가 그러듯부랑호
 줄은물고 부자의집안니요 어려서부터 일본가유학을 호엿다가기에 얼마콤
 나는 어리석은마음에 후일을 바라고억제의일을 호엿다가 인제는 그벌역을
 내가 당하는가보오 리호싸지호엿스니싸 그스름호고는 남남이되엿스니 다시
 말할필요도 업거니와 그러타고 지금에 다시 리수일을불너오저호면 리가죽을

벗기는것이 낫지 무슨면목을들고 리수일의 얼골을본단말이요」 항며 늙은눈에
 흐르는 눈물을 손바닥으로 씻는다 「이왕 그릇된일을 말슴호면 무엇호오 죽
 어가는 사름을 살날도리하는것이 데일상책이지요 기애말을드르니싸 오륙년
 동안을두고 밤낮으로 리수일을 생각호고 근심으로 지내다가 이병이 난것이
 니 조곰이라도 병이 덧치기전에 리수일이가와서보고 정답게 말호마디만호여
 주면 곳정신 차리고 병이나올지도 알수업지요 의원이든지 약이든지 호만콤
 은 다호여보앗건만은 그리도 효험이 조곰도 업스니 인제는 별수업시 내말티
 로 그러케하는 수밖에는 업슬듯호오 령감싱각에는 엿더호신지」 「마노라말과
 갖치 그러케히서 쥬의병만 는호것호면 내얼골은 뜨거운것을 도라보지아니
 호고 자식호아 살날육심에 슈일이를 초저보고 절이라호고 다려오려고호겟
 소만은 리슈일이가 그러케 얼는 올는지모로겟소 요전에도 쥬의청으로 마저
 못히서 병원으로 초저갓슬때도 슈일의호는모양이 티단호고 눈도거듬써보지
 를아니호는데……」 「그때는 그리스드리도 그것은 말서 잇히나되지안앗
 소 슈일이도 그간에 분호마음이 좀풀넷겟지요 그리고 순애의몸이 지금과 그
 때와는 아쥬다른겟지요 그썸아니라 지금순애 이러저러히서 병으로 죽게되엿
 스니 호변만 와서보아달나고 간절이 말을호면 령석간장이 아닌다음에야 저

인들었지 못하겠다고 되답겠소 저도 순애와 혼집안에서 남미 갖치 심여년을
 즈라나셔 그싱각을 흘들 순애가 이디경이 되었다 하는디 엇지 회심이 되지안이
 하겟소 대례 령감은 마음이 너무약하심디다 제가 우리를 원망하는것은 원망
 이고 우리에게 은혜진것은 은혜지요 은혜진싱각을 할기로 제가 엇지 우리의 말
 을 거역한단말슴이요 저도 감안이 싱각하면 의리의결니여셔라도 감히 못하
 겟단말은 아니하오리다」마누라의 마음에는 내편으로 만당기여말을 하니사
 그러하지만은 저편스름을 또 제싱각이 싸로잇지요 그러하니사 내싱각을 아만
 가지고 좌우를 용이하게 판단하야 말할것은 아니원다」하며 다시 고기를 다
 이고 전일에 슈일을 병원으로 초갓갈때에 심흔닝티를 밧고 슈치당훈일을
 우연히 싱각하야 지금에도 오히려 이마에서 썸이 흐름을 써뎀다。 이때에
 홀연 병상에 누어잇던 순이는 소리를 지르고 몸을 벌떡일어 병상아리로 썸
 여나리며 옷신을 푸러헛치며 빅설갓흔 가슴을 드러내노코 바른편손들저손사
 락을 빼물며 선혈이 식암호로드하는디 눈을 런던을 향하여보며 두손을 모아
 무엇을 밧을듯지 방안으로도라 단닌다。 순이의 부르지는는 소리에 놀내여 밧
 그로서는 의스와 간호부가 일제히 들어와 병인의 기운가라안질방법을 베풀며
 심태의부부는 순애의 옷을 벗들며 팔을잡고 도라다니는디로 호가지로써라 단

니며 (이에 이개원일이나 정신좀 초려라 어셔저기가 놓지 음)

대구장 慈父의哀願 (조부의애원)

년과는 류십여제나 되었스며 이마는 버져지고 머리털과 슈염은 거의빅발이되
 앓는디 장승과 못치 파괴호몸은 등걸만 남아잇는듯하나 그온후후 마목에는일
 락유명이 나타나며 중장에몸을의지하고 동문의의 일기촌간에서 훌적히 세월
 을보이는 빅락관의집을 초자온스름은 심탁 심탁은 스스로 자과의일흔을 말하
 지안을동안에는 빅락관은 능히 일골을 알아보지못하겠더라。 전일에도 우연
 히 슈츠의 면분이 잇슴은 빅락관이가 고등학교에 단닐때에 동창성으로잇든
 리슈일의 인연으로 슈츠의 면접한일이잇슬뿐이요 지금이라도 그일흔을들으
 면 면저는 수일과 슈이를 싱각하고 그다음비로소 심탁의일흔을 싱각하는디
 이니 그음성과 형용을 처음디하는 스름과 조곰도 다름이업슬지라。 저물의
 육심으로 눈을 흘이여 그겉을 앓기였스며 천아달과 다름업는 조흔청년을 바
 리여 흘스름은 자포자괴하야 몸을스스로 타락하얏고 할스름은 실성흔에일이
 게흔 간접법인으로 싱각함에 이마우에 현머리가 붓그러움에 취하야 북지도록
 면척을하야도 오히려부족하리라 싱각하얏스나 다만 년치가 마음쓰리고 또
 는 처음인사하는 사람이나 다름업슴을 혐의하야 빅낙관은 심탁의 하는말이

나 먼저 듣고 저한다. 심리학의 비락관을 아는바는 고등학교시 되부터 슈일이 가
형과 처치 공경하는 학우(學友)가 될뿐 아니라 그 때부터 위인이로 성하여 일한
쇼년과는 다른 곳지만음을 보고 장티에는 필연 고귀한 스름이 되리라 예당하였
든터이니 이제는 상당한 디위를 엮어 쾌락한 생활을 힘으로 생각하였더니 비
로소 눈압해당하여 현상보견되 수간모옥에 일정흔 직업도 업고 그 제의 빈한함
이 외양에 나타내며 일기 부랑흔 인물에서 지니지 못함을 보고 처음에는 그과
초조오기를 그릇하여 동성동명자 마 잇슴이 안인 마 의심하여 그과의 말하고 저
하던바를 심히 주저하였더라. 그러는 초조로 말의 단서를 열어 문답하는 때에
은근히 살피건디 언어가 저약하며 스름으로 하여금 업수히 녀이지 못할 터도가
보이고 의과가 현상하여 스름을 능히 항복받을 만흔 괴운이 잇는 듯하다 「여러
번 이러듯 못는 것이 더 단히 미안한 일이는 오날 로형을 초조는 것은 드름이 안
이라 는 의비밀호 스정이 잇셔 그 일을 의론차로 온길인디 과연 로형이 예전에
리수일 이와 혼가지로 고등학교에 드니는 비락관씨요」 「네 그러습니다 제가
그 때 그 비락관이 가 분명하오이다 로인씨셔 보시는 바와 처치 이르게 형세는
곤난하게 지니도 마음은 조곰도 곤난치안습니다 이 전이 는 지금이 는 비락관
이 는 변하지안앗스니 로인씨셔라도 조곰도 엇지아시지말고 하심말습이 잇거

든합시오」 여러번 의심하여 못난 말을 비락관은 심히 무례하다 생각하여 최망
을 하고 저한다가 다시 년치를 생각하고 다문 속으로 은근히 우스며 두손바닥
으로는 슈염문부비는 더 심리학은 그과의 실언함이 만음을 붓그린다 「우리가
피차에 길 이 달는서 오리 퇴읍지 못한다가 오날이야 이러케 차저와 주셔 처 퇴읍
습니다 만은 작년봄인가 여름이든가 김중비씨의 부인된 순애씨를 오리간만에
우연히 만나서 여러가지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로인씨셔도 아마 저서히 들
어게서 갓지요」 「는는 쌀의 일이지 문은 당초의 저서한 말은 듣지 못하였소 작년
에 기애를 만는 보았다하니 어더서 만는 보았소 혹시 덕에를 차저와 습더니가」
「아니요 천만에 말씀은 중심니다 그려 지금당시에 유명흔 실업가 김중비씨의
정부인으로 엇지 루추흔 제집에를 왕립하실수가 잇습니 마 엇지하다 마 우연
히 길스 마에서 잠간 만는 퇴와지요 그리도 이 비락관이 갓흔 광인의 얼굴을 보지
아니 하섯는지 알아보고 반석을 하심되다 그리셔 더 강말습도 들었거나와 순의
씨도 그간에 너가 이리 된 것을 보고 짚작 놀니 십되다 그러나 순의씨도 여러가
지로 논쳐 하스정이 만흔 모양으로 말씀을 듯고 저도 스름의 팔저라 하는 것은 알
수업는 것 이라고 감동되는 마음이 잇셔 하가지로 눈물 흘린 일도 잇지요」 「말
슴들어도 엇지 고마운지 모로갓소 그다디 동정을 표하여 주시니 아비된 너마

음에도 엇더케 고마운디하고 말씀이업구요」 「그러나 지금말씀을 들으니 내
 썰뜨식의 스정이라든디 심중에잇는 소회를모다 본인의 입을 쥘점을들었다하
 니 니가 다시 번거히 여러말씀할것도 업소만은 다만 말씀하자는것은……
 기애가 요사이로 그만 실성하엿구료」 「응…… 미쳤셔요 그리정말 실성을하엿
 단말씀이은니가」 빅락관은 사근히 순애의 소식을 뒤으로 탐지하고 잇는터인
 고로 순애의병이 중하단말도 들었스며 실성하여 병원의 입원훈일도 알앗는
 지라 그런고로 그후에 증세가 엇더함을 심두에 잇디못하고 녀려하더니 이제
 다시 그부친의게 확실히 실성을앗다하는말을 드르미 식로이 마음에 창연함
 을 악이다못한다 「저부터 거동이 전일과긋차아니하고 뼈々로 정신업는말을
 하며 밤낮으로 방안에 혼자들어안자셔 을사불락하여 하기에 의원을보인즉
 과부족이라하여 약첩이나 먹이엇디요문은 이렇케 미처바릴줄은 몰났구료 처
 음기애가 미처셔 날치는모양은 보앗슬때 니가 엇더케 놀내앗는디 정신니 아
 득중음디다。 지금은 총독부의원에 입원식이여잇는디 의사의말이 정신병이라
 고하여서 스오작만 치료하면 쾌복이되겟다하기에 스오작안이라 스오년이 되
 드리도 낮기만하얏스면 조케다고 고되하얏더니 뜻밖에 점々더하여 지금은
 어제오날로는병이 만성(慢性)으로 변하엿다고 의원의말이 그리하며셔……」

「네 만성이 되엿셔요 그러면 낫는다하여도 을애될걸지오。 그러나 정신병도
 종류가 여러가디니사 순애씨의 병은엇디더히게 되엿습니가 뒤감증세가」 「증
 제라야 별노 색로잇는것은업고 실성환스름의 항용잇는증세디요 처음에 시초
 하기전 몇칠동안은 항로를 가도 말말마타아니하고 심란환스름긋치 종일아모
 것도 먹디안코 즈리에누엇습디다그려」 빅락관은 즈로 고귀만 식씩이고 뒤답
 이엿다 「그렇케 몇칠동안 디니더니 안졌다가 별안간에 방안으로 마당으로
 도라다니면서 눈에무엇이 보이는디 무엇이라고 혼즈 중얼거리며 울엇다가
 우섯다가하노 모양은 참아 부모된스름의 눈으로는 볼수가업습디다 그중에도
 데일더 처음환것은 울다가 우섯다 할제마다 혼즈하노말은 모다 수일을보고하
 는말이지요 수일씨에게 니가잘못히스니 수일씨는나를 용서하여주시요 하며
 병이 이모양되기전에는 그다지 수일을 말하노것을 보지못하얏더니 병이심
 호후부터는 하노니야니는 모다 수일의 두렁이요그려 병은 본리수일이로하야
 서난 병이니사 그러케도하겟지만은 나중에는 두번이나 즈살을하려고 하는것
 을……」 「아 또 자살을하려고히셔요」 「네 두번이나 그리하얏지요 본리실
 성환스름이니사 밀이주의하고 위히환물건은 당초에 압해듯치 아니하얏지요
 그리더니 한번은 치마섬으로 목을미여셔 벽에 박힌못에걸고 늘어진것을치

마음이 약히서 탁 쓴어자니까 다행히 살아났지요 만일 그렇지 아니하셨스면
 밭서 죽었슬스름이요 그리고 또 한번은 제손사낙을 제가 써무려서 피를흘니
 난티 감안이 그동안을본즉 모든것이 리슈일을 생각하고 그리후난 모양
 하니 여보 빅나관씨 나난 그모양을 써가 녹는것갓히서 못견디겟스니 엇지
 면쫄소 심턱은 이리 말하고 소스나오는 눈물에 얼골을 도로기며 조쥬슈건
 에코만콜고 빅나관은 눈을감고 티답이업스며 김히성각하는모양이라. 슈목
 이 올밀흔 이곳에는 미음이 우는소리가 집을 에워들니는티 바름업는 여름날
 이라도 스스로 청량흔 괴운이 일어는다 「여보 빅나관씨 그런데 니가오날 별
 안간에 일부러 노형을 초조은것은 다름일이아니라 그저 노형의 힘으로수일
 이를 우리쌀에게 한번만보여 주시구료 그리스면 그것이 다시 살아날도리가
 잇슬듯호오구료」 빅나관은 그제야 비로소 눈을쓰고 고개를들며 정시(正視)
 한다 「그씨가 아마 작년봄이든가보오 슈일이가 한번우리집을 써나간이후에
 는 다시 소식을뜻지못하고 거처를 아지못하다가 우연히 전하는소문을들으니
 까 슈일이가 누구에게 몹시마져서 괴지스경이 되얏는티 지금 총독부의원에
 임원하여잇다하는 말을뜻고 오리간만에 만나보는것도 반갑고 문병도 할조로
 초조갓섯지요 슈일이난 그때싸자르도 너의 혼일을 모히도호얏고 또는 니가

제게 잘못한일이업다고는 할수업기에 좌우간 만나보고서 잘못한것은 잘못한
 것이요 잘흔것은 잘흔것으로 아쇼 서로파혹을호조고 이늬는것이 더를먼더
 초조스구료 그리더니 파혹은 고스하고 명함을쥬니까 당초에 심턱이라하는
 스름은 아지못하느스름이라고 도로쫄차니보넵되다 그것치만 나는그리도그
 렷치못하야서 저를들어가보고 이리저리 그것치아니호리유를 말하여도도모
 지들을 생각도아니하고 벽을향하야 눈을감고 도라누니 그때내모양이 엇지되
 앓겟소내가나히 철심에 그런수치당하여보기는 처음이요. 그런데 그때보니
 씨수일이 그간에 엇더호녀편네를 어뎀나 몹되다그려 「너편네를 엇어오...」
 하며 빅라관은 의아하야 도로혀못는다 「그때에 나하고 인스씨지 호얏는티
 성명이 최만... 엇더른지최가는최가야요 일흥은 내가 이젓소만은 웃은양
 복을입고 요사이문조로 춤하이카타를호고 슈일의염해 아조첸절하게 병구원
 을호고 잇는티요」 「올치 그러치 그너조는 최만경이든게지요 그너조도 취리
 상에서 노느스름인티 제가 리수일을 탐내어서 령락호려호지요만은 수일이
 결단코 말을뜻지아니호는티어윈다 수일이도 너편네에게는 큰경험을 당하여
 본사름이니...」 「심턱은 탄식하는듯이 흰눈썹을 찡기고 손에들엇던
 부채를떼서 성느스름갓치 얼골 두어버붓치고 다시 탁 절어호편업호로 치여

노으며 「지금 말하바와갓치 늙은것이 먼저 차즈가서 사과할듯하여도 저사람
 이 들어주지 아니하는것이야 엇지할겟소 그러나 심유여년을 혼집안식구로 알
 고 지너다가 엇지흔과실로 조고마흔감정이났기로 그렇케 받을것은 나는
 정말야속하여서 오날々々지라도 풀리지안소 서로 정든본의로하기로 엇지그
 리하느수가잇소 그러나 이번에는 내쌀지식도 저모양이되야서 지성으로 수일
 의 엄골을보고 심허하니 이과회에 저의가 서로흔번만나서 전일감정을 풀어
 바리고 조흔스이로 다시 지내엿스면 오작 조겟소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 그
 러하지 수일의싱각은 엇더흔지 요전에 병원에 차즈가든때와 갓혀서는 좀쳐
 럼 듯지안이흔듯하나 좌우간만나서 수일의티답이나 들어보아야 할터인디 티
 체만나야하지안소 수일의집을 간신히 슈소문하여서 사오차나 차즈가도 도모
 지만나볼수가업고 그집에 최원보라고 하는사람이잇는디 늙은사람이 아츰져
 녀으로 하도여러번 차즈오니사 아마 가업슨마음이 낫든가보옵되다 그리서
 무슨일이잇기에 로인이 이렇케 여러번을오느냐고 묻기에 저서흔말을 하엿드
 니 그사람이 로형의 집을가라쳐 쥬면서 로형에게 의론을하야보라하기에 로
 형도모로논터가 아니요 더욱반가와서 이리로 차자왔소 로형이 이늙은놈의사
 정을 좀싱각하야 주시요 수일이논 저모양이되고 쌀자식은미쳐바리니 이런놈

의 신수가 어디잇소 우리내외는 썩 죽고십은싱각박게는업소」 비락관은 묵중
 혼리도로 서々히 입을열어 말한다 「로인장의 지금사정을 나도 다알고잇습니
 다 그렇치만은 과탄업시 바로말을하면 로인씩셔 오늘날 이고싱하시느것은
 모다 자취을시다 순이씨가 마음을티우다가 드터여실성흔것도 당신의 잘못이
 오수일이가 집을떠나서 저러듯몸이 타락흔것도 당신의 허물이윈다 엇저하
 여서 그러하냐말하면 혈기가미정흔 청년남녀로 견화흔디각이 업시마음이사
 면으로 혼터디기쉬운씨의 로인장녀외분이 약이게시면 혹시모를일이올시다만
 은 항상업헤잇셔서 그사람의 감독을 잘하섯든들 그청년남녀가 오늘날 저모
 양이되엿습니가 만무하디요 그런고로 그허물은 전혀당신의 몸의잇다하야도
 가하외다」 심학은 붓치로 무릎을잡고 감아나 안자 비락관의하느말을 귀를기
 우리고 자서히 듯더니 나마에소사나오는삼을 수건으로 써스며 「진실노나는
 면목이업소 로형이 그렇케말을하니 나도말이요만은 실상은 오늘날와셔야 비
 로소 륑년전의 너가 잘못흔일을 써다랏소 집에서 우리마누라다려도 아즉 말
 할법도업소마는 엇디하야서 그때는싱각이 그렇케 들어갓던다 디금와서는
 후회막금이오 그러나 수일이로 말하면 제가 혼짓시 너모도 분하구요 너가
 비록 언약을 어긋엿다할디언딩 너마음은 결단코저를 아쥬내여바틸것지아니

요 아췌슈양자로 정하야서 변변치는 못하야도 심퇴의 지산을 상속도 하여 줄러이
 오 학교를 맛친후의 다시 공부를 하고 심거든 일본사디라도 보너여 주마하얏고
 또는 십여년간 양육하야 췌은혜를 생각하든지 어차피에 제가 나를 그러케티
 절할수가 업는디인디 지금에 제소위를 감아니 보면 그런박정할사람이 어디잇
 소 그런고로 지금사지 나는 슈일이틀 불상히력이 지아니하얏소 제상사람이라
 하는것은 모도 엇더케 무정할물건인가하고 단정하얏더니 인제는 너속으로나
 온자식사지 저모양이되고 본즉 친은하여 못보겟고 그것을 측은이 생각할때마
 다 수일이 가 다시 불상하마음이 나는구료 사람이라하는것은 모도 그러할것
 입디다 제가 그경우를 당히보아야 사정을 아는것이야 슈일에도 오작원통하야
 그모양이 되얏겟소 나는 인제야 수일의 사정을 불상히력이오. 니가 췌의 혼인
 을 파의 할때에 처음얼마동안은 절문아희들의 마음이라 좃치 못할것은 덩. 혼일
 이지요만은 차차오리되면 그마음저마음이 업서지라고 나는 용이하게 생각하
 고 혼일이 수일이논 그길로 몸을바려서 저모양이되고 순이는 처음에는 부모
 의식이논디로 순종하야 가기에 결심을 단々히 혼졸노만알앗더니 실상인즉
 순이의 마음도 역시긋게 결심을 못하얏는지 그여히 떠모양이 되엿스니 나는
 인제와셔야 비로소 그씨의 생각이가 그릇들엿든줄을 세다랏소 순이와 수일의마

음은 너싱가과갓치 잠시 그자리뿐이아니라 디단히 김고김헛던줄을 인제야
 세다랏소 지금 노형말삼과갓치 경력만은하은사람들이 좌우에잇스면서 청년
 남녀로 더지경을 만다라노은일이 절동하고 분혼일이라하거나 절동하고 분혼
 것은 고사하고 데일 남을티가기가 붓그럽소 이런 하은물건이라도 업섯스면
 남들이라도 괴이하게 알것이업것지만은 실상인즉 이하은것의말이 절문아희
 들보다 먼저 어두어서 그러구료 바르디로 말삼하면 디단히 붓그러운말이지
 만은 전혀 김중비가 큰부자라하는말에 눈이 현란하얏구료. 여보 빅락관씨
 이리케 하은놈도 저물에 눈이어두엇거든 향차심지 미덩. 혼계집아히가 잠간마
 음을 변하기는 쉬운일이아니오 그러나 리살은 그일로하야서 오륙년을 근
 심으로 세월을 보너다가 그여히 이제는 실성사지 되야서 수일에게 사죄를
 하고 뉘웃쳤스니 수일에도 이제는 얼마큼 마음이 풀어더셔 용서를하야 줄뜻
 하구료 만일 그리도 수일이 가 마음을 풀지아니하고 용서치아니하면 그야 여
 자로 엇지하겟소 할수업는일이니 다만 수일의얼굴만 혼변 순이에게 보여췌
 엿스면 조켓소 억지의말을 니가하는것갓지만은 이런말을 노형에게나 청을하
 앓지 니게다가 말을하겟소 노형은 그더실성하야 죽어가는 순이의 덩. 경을 불
 상히 려이시고 이하은심퇴의 너외를 가련이보아서 이청을 혼변만 들어췌면

우리삼부녀가결조보은이라도 할것소」 하며 심턱은 머리를 조아 의원한다
 빅락관은 할편으로는 우습고 할편으로 가공하여 심턱의 얼굴을 바라보며
 「로인장씨저 지금 논쳐하신 사명을 저도 자셔히 암니다 다키가 리수일을 뒤신
 할야 로인씨 할말씀도 만이잇습니다만은 로인씨저는 말셔 전에 잘못한일을셔
 다라 남이붓그럽다고싸지 말슴을 할실제는 좀쳐름 생각할신일이 아니니싸다
 시더는 로인씨 경의(敬意)를 표합니다 인수무과리오 깨디위귀 (人誰無過改
 之爲貴)라 하는 예전말씀이잇스니 로인장씨저 인제는 모음을 잘가지섯습니
 다 리수일이도 아므로인장의 그모음은 인제는알것지오 그러나 수일을를 순
 이에게 할번만 보여달나하시나 그일이 제힘으로는 할기가 어려울것외다。
 작년에 순의씨를 평양셔 만났을때에도 순의씨의말이 슈일씨로 할번 만나게
 주선을하여달라고 할읍디다 만일 슈일씨가 내죄를 용셔하여주자안는다하드
 리도 그압헤셔 마음에잇는말이나 다할번 할야보고 그자리에서 죽엇스면 원이
 업겟다고 말씀하는것을 저는 생각하는일이 잇셔서 거절할것습니다 순의씨의
 뒤웃친일도 자셔히 알앗고 순의씨의 슬픈사정도 모르는것이 아니올시다만은
 할편으로는 또 리슈일의 정상도 생각해야 할지안습니가가련할정상이 누가더
 할것느냐 할것것할면 슈일의원통하고 슬픈마음이 아마 순의씨의 근심보다

빅비나더할오리다 아주도 순의씨의 고통이 부족하니셔 용셔할말길일이 부족
 하다고 저는 그씨에 차마못할말로 거절하고 눈물을흘니고 작별할것습니다
 그리셔 그때는 친구의 의를싱각하고 순의씨를 용셔쳐못할것습니다。 그러나
 순의씨가 근심에 근심을 더하고 고통에 고통을 더하여 드더여 오날사 실성
 하는디까지 일으릿스니「이모양이 된후까지도 순의씨를 희망하는것은 사람의
 정이라 할수가업스니셔 제가 아모짓을할지 리수일의원망과 분할과한은 다키
 가 밍제하고 풀어드릴터이니 녀려마시고 가시거든 순의씨다려 리수일이 용
 셔할야 준다드란말씀한마디만 할야주시요」그러면 빅락관씨는 나는밧고가
 오」심턱은 할연 희석이 만면할야 깃거운보고를 그안희와 딸의게 전할고자
 흥々히 작별하고 병원으로 다시 향할야가니라

데심장 氷上媵 (방상모)

스오일동안 청음이 고로지못할던던기가 이날은 아츰부터 큰비가 나리고셔
 양에 일으러는 고흘비로 쓰러내인듯시 구름은 훗터지고 청양호 월광은 동편
 하날에서 얼굴을 나타내어는씨에 더위를 쫓는서풍은서서히 불어스름의 가슴
 서저 서늘하다 길사에 손도업는 빙수집의 주렴은 한가히 바람에 울자일뿐이
 요 종현던주요당의 썩々치는 종소리난 지금 오후여달시를 보하는때이라。 시

문밖 링동리수일의 집뒤々々 오동나무아리에 교의를나라니 버려놓코 남조두
스름이 걸어안잠스니 한스름은 고기를 속이고말이업스며 흐스름은 수염노일
골로 달을향하여 창연히 바라보고 있더니 다시 고기를 돌니여 엽혜스름을나
려다보며 「여보게 수일이 어서 결심하게 내가 조네 결심하였다는 말을 들어
야하겠네」수일은 마음을 결단한바가 있는듯시 고기를들며 「여보게 빅락관 조
네의말대로 내가 그것은 결심하겠네」 「응:결심하였셔 그러면 조네는 오날
은 세례를 받은세음이니 너일부터는 단정코 고리디금영업은 폐지할터이지」
「너일서지 엇지기다리겠나 오날 이자리에서 아조폐지하였네」 「허허 단이 고
마운말일세 그러면 조네는 부활(復活) 할 스름일세」빅락관은 손을 들어 수일
의 손을짜기 쥐인다 손을잡은 스름이든지 손을잡힌 스름이든지 한층동안말
은업스니 구회를 악이지못하여 창연히 눈물을 금치못한다 「아:수일이:」
「빅락관 나는 길고 길고 다시 긴 꿈을꾸었네그러」 「허허 조네가 인제 간꿈
을 쟈었나:꿈은 쟈었지만은 조네의 세상은 역시적막히이그러」 「:~:~:~:」
:~:~:~: 「조네와적막할정각을 울고있는 스름이 역시 꿈을쟈여셔 흐스름
또잇네:~:~:~:」 「:~:~:~:」 수일은 대답지아나하고 다만 미소를 띄우며
고리만 좌우로흔든다 「여보게 수일이 데일문데는 비로소 나착이 되었스니

인제 데이문데을 조네에게 말할터인디 엇지하였던지 오날은 대단히 깃거운남
이라 조네는 비록술을 먹을줄물나도 조나님의 성찬(聖餐)에 마시는 포도주
로 알고 혼잔먹세 그리고 우리가 오날 저역에 모단문데를 허결하여 바리세
나그러」 하며 빅락관은 쾌활히 로파를불너 술을 청한다. 수일은 본리부터
술을조곰도 겨구치못하는터이라 그러나 이흔은 극히 깃거운들이라하여 감입
히 수삼빅를 마시미 수척하였든 얼굴에 일막성기가을으며새로이 온화한전
일수일의 형용이 나타난다. 빅락관 잔에 술을 가득히짜라 술잔을 다시전하
며 「그런데 내가 데이문데라고 말하든바는 다른말이 아니라 여보게 수일이
조네는 오늘々 이렛게 회기를 하였네그러 회기할 이상에는 여섯히스동안의
조네가 타낙하였던것은 모다업서진줄로 조네도 알지 혼번 죄를 회기하고 조
복흔이후에는 리수일이든 정말완전한 스름이되었다할터인디 그러케완전할사
름이된 리수일을 만일이후에도 어제스늘서지 고리디금영업 수일이로 세상사
름이 되점을향면 그때는 조네가 엇지할터인가. 이와갓치 어려운 말로 물으
미 수일은 잠시 디답을 주저하다가 「그렇게 되점드리도 홀수업시 조네가
그디점을 받을만한 죄책이 잇스니서 아모소리못하고 참을수밖에업지」 「그러
나 회기할 스름에게는 죄가업다하지만은 전능하신하느님도 회기할 스름에게는

죄를 용서한다 하였는디 전능치 못한 인간으로 자네 갖치 이렇케 회개하는 사람을 회개하기 전 스름으로 알고 티점을 할면 할수 업시 참고 밧을수 밧게 업겠지 만은 자네가 생각을 할드리도 너모심하다고 말하겠지」 「그야 그러하지……」 「그러면 즈네도 그러케 생각하네 그러면 나는 아모리 회개를 하여서 조혼사름이 다시 되었건만은 사름들이 내 몸을 그러케 티점하는 것이 원통하지 만은 할수 업시 참고 지낸다 하지 그러나 만일 마음이 약할스름이면 그러흐일에 반동력이 생기어서 일진회개호본의가 업시 도로다시 타락하야 바라노일이잇네 그러 「응 자네말알아듯겟네 빅락관이 자네는 나를 녀려하여서 그런말을 할을듯고 말을하네 니가 아모리기로 자네의 마음이 구은줄이야 아지못하겠나 자네가 마음이 약하지 아니할것은 티단히 조흔 일사세 그러나 너모 굿세여서 강유가 겸전하지 못하면 거괴셔 무슨일이 또 성길는지 모로는 것이지」 「그러면 자네의 말이 내가 오늘사 회개하얏자만은 이후에 또 다시 마음이 엇더케 변할는지 몰나서 걱정되야 하는 말인가 자네말도 그러할듯하나 나도 오늘사까지 이세상의 공과를 여러가지로 거겨셔 인정세대가 엇더하지 티강은 알고잇네 이후 부터는 세상사름들 다려 나를 알아달라고 하지안네 여섯히전에 리수일이논너

모정직만하여서 그럴과로 즈포즈기도 하여보고 타락도 하였스나 오늘사 부터 리수일은 조곰 엄전한 스름이 되어야 할것네 하하하」 하며 수일은 빅락관의 녀려하는 마음을 풀고 조하야 쾌락한우슴을 보인다 「그런치 사름이라 하는 것은 엄절한 것이 잇셔야지 너모정직만하여서는 조고마한 일에도 남의원망도 하고 한탄하여 지는니 정직한 것이 물론 아름다운 일이지마는 그러면 그러시니 무적어 못쓰는 법이야 그런고로 예전스름의 말은 그 죄를 미워하고 그 사름은 미워하지 아니 한다는 말이 업는가 그리한 말이 모다 엄절한 말일세 그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만일 스름의 죄를 용서하면 너희들의 천부도 또한 너희들의 죄를 용서할 것이요 만일 사름의 죄를 용서치 아니하면 너희들의 천부도 또한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스니 여보게 수일이 즈네도 자네를 스사로 용서하는 동시에 그녀즈 한사름도 그만 용서하여 주면 엇더하겠는가」 비로소 수일은 빅락관의 데이문제의 기본뜻을 희득하였더라. 회개하는 사름에게는 죄가 업다 설명하며 전일의 죄과를 항상 허물로 아는 것은 너모 칭축한 일이라 하야 혹은 고석성현의 관용(寬容)하는 일과 혹은 천부(天父)의 자이(慈愛)를 순사(諄々)히 말함이 수일의 금후처치함을 녀려함이 아니라 모다 순이의 지극정성을 비유하야 말함이라 수일은 무엇이랴 티답함을

바를 아지 못하고 점사 고개를 드리우고 눈을 뜨지 안으며 대답이 없다 「지금 한 말을 또 다시 하는 것 같으나 자네도 스스로 잘못한 줄을 알고 스스로 뒤늦게스니 그 녀즈도 그만 용서해 주어 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너모 과하지 안은가 녀자라 하는 것은 마음이 약한 물건이라 한번 회개한 일이 잊드리도 다시 동정을 하는 사람이 업스면 도로 타락하여 지는 일이 업지 아니한 법이니 내가 지금 녀려하는 바는 그것일세 연약한 아녀자를 가지고 그닥지 심하게 할 것은 업네 지금 그 녀자는 목숨이 조석에 걸니 여서 죽고 사는 것이 자네 손에 달니 었는디 자네는 그 녀자의 죽는 것을 눈으로 보고서 가마니 두려는가. 수일은 속으리고 있던 고개를 간신히 들며 「글세 자네는 용서만 하여 주라니 용서하면 잊지한단 말인가」 「엇지 하다가 당장에 죽어 가는 사람을 구히내야지 생죽임하는 것을 잊지보고 있나」 「구히내여 : 었디께 구한단 말인가」 「인제는 자네가 용서하여 주고 다시 인연을 이으라 하는 말일세」 「응 : 인연을 이어 : : :」 하며 수일은 의외의 호는 말에 심히 놀내이는 모양이라 「여보게 수일이 그러치 아니하면 그 녀자는 죽는 사름일세 육년전의 심순이를 자네가 아조 잊지는 아니하였지 아 못조록 죽지말게」 「감아니 잊게 니가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네」 오동입사이로 흘러오는 달빛은 묵사히 안자잇는 두사름의 적막히 빛초이는데 반디스불은 하나 들석 담뱃그로

지내여 놀아간다 백락관은 수일의 마음을 저촉하는 모양으로 「여보게 용서를 하든지 못하든지 대답하게 그 녀자는 회개만 하였을 뿐이 아니라 그 결과로 실성사지 하였고 두세 번이나 자네의 깨티한 의리로 자살사지하려 하였스니 그 정상이가 공치 안은가 그만 용서하게 지금순이는 김중비의 안해가 아니라 전일의 신탉의 딸 심순이가 다시 되었데 이지경까지 되도록 자기의 몸을 책망하여 회개하였는디 그리도 그사름을 허물하는 것은 너모 심하니」 수일은 양협의 눈물을 드리우며 「응 : 용서하여 주겠네 : 용서하여 주지」 「용서하여 주는 것을 입으로만 해서야 무산 효험이 있나 그 녀자를 한번 만나보고 그 녀자의 귀에 들니게 말하여 주게 그리고 그 녀자를 자네가 직접으로 위로하여 주게 자네로 하여서 병이 들었스니 자네 말한 마디로 실성한 사름의 병의 의약으로 었지 낫는단 말인가 네 아모리 의약을 한다 하기로 실성한 사름의 병의 의약으로 었지 낫는단 말인가 자네가 만일 그 녀자를 불상히 녀이여 전과 못치성한 사름을 만다려 노을 생각이 잇거던 다만 한가지 도리가 잇스니 그것은 자네가 만나보고 다시 자네 집으로 다려 오게」 「여보게 감아니 잊게 맞나고 아니 맞나는 것은 아직 결단하여 티답할 수 업네」 「그러면 어서 결심하게 용서한 바에야 맞나 보는 것이 무산 어려울 것이 잇단 말인가 앓가도 내가 말하였지만은 일전에 심덕씨가 나를 차저와서

한번만 수일이기를 맛나게 해달라고 만일 수일이가 순애를 용서하지 안으면 그도
 홀수업은 일이지 만은 얼골만 잠깐 보여 주어도 좋게 하고 하면서 빅발이 된머리를
 니압해 속이고 눈물을 흘니면서 애걸을 하는데 그려가엽기도 하고 또 눈동정이 업지
 도 아니냐야 거절치 못하겠네 그려나 지금도 그려즈가 만일 김중비의 안해라
 하는 명목이잇스면 나도 그렇게 마음이 씨이지 아니하겠스나 임의 김중비하
 고 인연을 씌은 지는 을애 되고 지금은 순전한 남이 되얏는 고로 나도 장담을 하고
 금명일되로 수일을 다리고 병원까지 가겠노라 약조를 하였네. 그려하니 자네도
 다시 생각하여 보게 이 위용서한 사람이면 한번 맛나 보기를 그려케 주저할 것이
 무엇인가 자네의 주저하는 뜻을 나는 도모지 알수 업되 혹은 입으로만 용서하
 옳다 말하고 그 실상 속마음으로는 용서할 생각이 업스면 모르되 그려치 아니한
 바에야 무슨 일로 맛나 보기를 어려워하는 오리간만에 맛나기가 점적하여서
 그리하는 그려 점적하지 안은 것도 안일세…………… 그려나 그려서로 맛나 보기가 점
 적하다고 자네가 몸을 피하면 그려자의 병은 점々 중하여 질러이요 또 눈중을 썩
 이 아니라 목숨까지 보존하기 어려워니 그려나 그려록 자네가 말하느것을
 나만 되고 집만 세우면 자네티 접이 안이니 짜…………… 그려면 맛나 보겠다하
 는 말인가…………… 그려 응 맛나 보지 주일은 드디어 서로 맛나기를 결심하였도다 슬

푸다 이 말한 무더를 듯기 위하여 그려즈는 오날날까지 기만과(幾萬斛)의 눈물을
 흘렸노도 어나날 밤이 되에 총독부의 원병실에 누어잇는 순애의 꿈은 두리
 건디 룩년전 봄날을 다시 맛남과 또다 그려 — 인제는 자네의 그 말한 무더의
 심순애의 목숨은 살았네 그려 빅락관은 수일의 손목을 잡으며 그려 — 룩년전
 에 순애 — 심턱의 절노 잇던 심순애 나도 순애씨의 신세를 만이 졌더니 뜻이 썩
 러지고 다시 봄을 맛났고나 다시 한번 예전순애가 되도록 하여보세 응 수일이 그려
 하여 두사람은 음연히 눈물을 흘니느디 섬들으리 니슬비 저진들속에서는 곳
 드람이 소리만 잔々히 들니더라 그려보게 그려면 흐시가 밧분터이니 속히 가
 서보고 그사람을 구히 주어야 하지안나 일어스게 어서가세 그려 용서하겠노라 언
 약하였고 맛나리라 밧계할 수일의 마음은 스사로 질기어 흠이 아니라 빅락관의
 열성과 빅락관의 권고로 인하여 밧절히 거절치 못하고 총독부의 원으로 밧길
 을 향음에 이르더라

데십일장 枯木生春 (고목성춘)

저는 임의 오후십일시라 총독부의 원병실 병환자실 수부구(受附口)에 남자 두
 사람이 명함을 전하며 환자 중한 사람에게 면회하기를 청하는 고로 처음에 밤
 이 기뻐다 하여 면회를 사절하는 지라 그려나 부득한 사제가 잇슴을 고함애 수

부흥은곳에 사람은 즉시명함을듣고 환자실로 들어간후 리수일 두사람은 회
보잇기를 기다리고 문압해서 잇슬때에 그안으로 좃츠환자실에서 들니는 소
리난 우는소리 웃는소리 부르지는소리나 잠시도선일 사이가업시 추々(啾々)
々(啾々) 현제인간의 목소리갓치아니하다 다시한편을바라보니 스무실협호로
던침을 들니 실성한광인을 수용하는 병실이 눈에 쏘인다. 슬푸다 순애도 귀
곡성과웃은 목소리로 부르지지즈기를 모지아니하며 감옥보다 더욱엄하게 경계
하는속에 갓치여잇는마 생각함에 두사람은 홀연 모발이 송연함을 셔닫게사
다라. 두사람은 흡사히 음부(陰府) 문압해서 잇는듯하여 다시 들어간 사람
이나아와 회보하기만 기다리고있다 조곰잇더니 두사람을 안니하는 자잇
셔 순이의 거처하는 병실로 향음의 문압해 임의나와셔 두사람의 들어오기
를 기다리고잇던 심력은 반々은 눈물을 금치못하며 순일의 손을잡더니 말을
일우지못하고 다만눈물만 흘일뿐이라. 빅락관은 리수일과 심력의 두사람을
헛치며 위로하듯시「이리할것이 아니라 우선급훈일부터 먼저해야지 그러나
좌우간 병인은 지금 엇더할 모양이오니」 심력은 비로소 눈물을 거두며「지
금은 조곰 진정하여 정신을모르고 안자잇스니 어셔들어가셔 보아주소」「자
ㅣ 그러면 순일이 어셔들어가세」 하며 빅락관은 리수일을 지촉하여 순이의

병실로들어간다 보던티와상우에 살아잇는 순이의시례는 대리석상(大理石
像)과갓치안자있다. 그모친은 남자들이 들어오음을보고 순이의 흐느러진머
리와 푸러노은 옷깃을수습하여준다 순애는 전일미혼시대의 얼굴은 거의업서
지고 다만 다년풍상에 마음의고초를 밧던 남아지흔적은 현연히 얼굴에 나타
는다 그러나 지금의 순애의 형용은 피여을으던뜻이 서리에 어울어 마음과
갓치여 거의 싱긋는 일덤이업고 면피등불빛아리에 보이는얼굴은 더욱푸르고
희며 근육이 일골에 소사 전일에 아름답던모양은 할아도보이지아니하다 인
스의변천이 이러하도다륙년전출광은 임의 예전이되고 한번우슴애 빅티를 자
랑하던 화련한빛을 이제는 장차어디셔 구하여보리요 리수일과 빅낙관은 할
가지로 눈물을 먹음으며 다만 순애의 변한그얼굴을 바라볼뿐이요 할방안에
는 적々하여 답화하는소리는 잠시동안들니지아니한다 「여보 순애씨 나는 빅
락관이요여귀 리수일씨도 다리고왔소」하며 빅낙관의 웅장한 목소리는 할
방안에 적막한 기운을셔치인다 「이애 순애야 네가기다리고 보지못하여하든
수일씨가 여귀왔는데 아지못하네」 두사람에게는 인스할피운도 업시 얼굴을
가리우고 다만와상 업헤 쥬구리고 안자잇던 그모친은 참지못하여 순애의몸
을흔들며 「순애야 수일씨가 여귀와셔 좀 보아라 밤낮으로 수일씨말만하더

니 수일씨가 이럿케와도 몰나 보논구나 그럿케기 다리던 수일이 도 몰나 보니...
 :」 하며 그모친은 다시 치마로 얼굴을 가리우고 눈물만 흘린다 「여보 수일이
 씨 니가 리수일이요 얼굴을 자셔히 보오」 하며 수일은 수일의 엽호로 갖가
 히 느아가 수일의 얼굴을 자셔히 드러다보며 수일의 수척호 손목을 고요히
 잡는다 그러나 수일의 보는눈은 다른곳을 향하며 잡하여잇는 손을 뿌리치고
 무엇이랴 호을노 중얼거린다. 빅락관은 위연히 길게 혼숨을 지은다 「아
 언제든지 우리가 평양티동강에서 우연히 맛났을때에 수일이말이 었더케향
 스면 이죄의용서를 밧겠느냐고느냐다려 가르쳐달느홀제 니말은 그디가 결심
 할기에 달니엿다고고는 인향야 작별향앗더니 그씨는 아마 수일이씨가 그말의
 자미를 못알아들었느보오 그러느 수애씨 수애씨는 그뜻을 못알아들었셔도
 쯔연히 다알아졌구료 지금은 수애씨가 죽은사람이니 다들것이엿소 죽은스름
 의게 무슨죄가잇겟소 당신은 밧셔 용서를 밧은사람이니 인제는 안심하고예
 전순애씨가 다시되여주오 응 수애씨」 그러느 수애는 조금도 말근정신을 차
 리지못함으로 심턱은여러스름의 심려함을불은히 녀일모양으로 「지금은 아마
 정신이엿나보오 조금잇스면 말근정신이 도라올씩가 잇스니 쯔 잠간 쯔편방으
 로가셔 담배나훈디 티웁시다 수일이 도 쯔방으로가자」 하며 병실에난 그모

친만 남기여 두고 제사람은 혼가지로 문을열고 나아가려할져음에 수일은 소
 리를 질으며 「수일씨」 하며 불은소리기가 피상히 나오는데 제스름은 일시에
 밧길을 멈추고 모다 수일의 얼굴을 바라본다그러나 수일의 향향여보는 눈은
 수일의얼굴을 향함이 아니라 「수일씨 수일씨」 하며 수애는 다시 부르지
 진다 수일은 드디여 참지못하여 순애의엽호로 급히나아가 두손으로 순애의
 엽기를 썬서밧들며 「수일이가 여괴잇소 수애 / : : : 수일이가 여괴왔셔 응
 알겟소」 향방안은 다시고요향여지고 순애의 목자는 점々 음작여 수일의얼
 골노 향하며 이윽도록 바라보더니 홀연 흰얼굴에 일덤붉은 괴운이 도올며
 「아이고머니 수일씨 : :」 그제야 수애는 비로소 정신이 도라왔슴이라 그목소
 리는 슬루고 그량안에는 구슬같은눈물이 흘으며 수일의팔에 머리를 숙이고
 점々 혼두팔는 수일의옷자락을 더위잡았다 「용서히주오 용서히주어오 수일씨
 제발」 「응 용서할지」 「어서 용서히주시오」 「용서할것소 수애말」 「용서할
 앳쇼 녀려마오」 「용서 할것셔요」 아 조와라 수일씨 인제는 죽어도 내가원
 혼이 안이되겟쇼 : : :」

데십이장 順愛의快復 (순애의쾌복)

륙년동안을 축원하던 마음이 비로소 성취되여 락화된가지도 잠시간이라 순애

가 슈일의 두팔에 안기여 온전호 정신을 추린동안은 심여분동안에 지너지 못
 하고 그흐르던 눈물과 깃거워하던 마음은 점々 살아지고 다시 혼々 침々 하여
 정신이 몽중에서 왕리하며 그릿듯 울며 깃거하던 마음도 전혀 이져바린것갓
 처 슈일의얼굴보기를 길사가스름갓치한다 일흔을불어나 대답지안코 말을하
 면고미를 도로켜 도로 온전호 정신을 일코 본증이 붙착되얏습니다. 그러나
 이제호변 수일과 서로 만나봄에 크게 호험이 잇슴을 그곳의스등도심히 회한
 호일이라 일크른다 그후부터 순애의 병증은점々 감하여지며 석々로 발착되
 는일이잇스나 수일이가 염해잇스면 주시가라안지며 비록 붙착될지라도 증
 제가 극히 경하여 몸을뛰노는일은업고 다만 혼침하여 인스를처리못할뿐이
 라 이제는병원에 두는이보다 호적호곳으로 옮기여 편안히 양병하는것이 맞
 당하다하여 순애를 우선 조과의집으로 다려오고자하였더라. 순애는 슈일의
 집으로 다시 도라와 병을치료하는중 호집안식구로잇는 최원보의내외던지고
 용하는노파이던지 모다순애의 가공호사정에 동정을표하여 주야를 사양치아
 니하고 지성으로 병인을 간호하며 더욱이리슈일은 잠시도 순애의 것을쳐나
 지아니하고 증제의 가감을살피는데 호로를지내이면 호가자의증제가 감하고
 이들을자나이면 두가지증제가 감하며 날이지니여갈수록 병의근원은업서지나

륙년전 리슈일의사랑하던바 순애의셋가혼 티도는 호아도 업서지고 얼골빛은
 흰우에 더욱 푸르러 거의 살아잇는 사람의형용을 알아보지못할디경에 일이
 뵈스며 홀연산괴가 불평한적이면 입을움작여 무슨말을하려다가 다시 훌쩍거
 리며 눈물을흘리며 「아! 너가잘못하얏스니 제발용서좀히주시요 여보 리수
 일씨 나는이렇게속을 티우고 잇쇼 그만하면 용서하여 주시구료」 하며 헛소
 리하듯시 향하는곳도업시 말을맞치고는 다시 능기여가는 울음을계속한다.
 이러호때에 슈일은 완연히 조모가 옥야를 다리고 위로하고 사랑할찌 진실호
 마음으로 젖을먹이는듯호 성심으로 위로하며 들내여 간신히 진정케하는일이
 적지아니하며 진정하면 다시 말근 정신이 식로와 육년전 순애의 정신과 조
 곱도다름이업다. 이렇듯 지내이기를 철팔사에 다다르미 순애의 병증은 전연
 히 거근되고 수일의 마음은 다시 그중제가 발착되지아니호기를 하늘을 우러
 러 축원하며 순애의 일거일동을 주의하여 전도의 광명을 바라는터이러라.
 그후에 몇칠을 지내인후는 의사의 말을 의지하여 수일은 순애를 다리고 온
 양은천으로 피접하얏는터 이는 다만 순애의 순후쇼복되기를 위하여 그곳으
 로호양코즈음이니 이제순애는 그곳려관이총우에 수일과 호가지로무름을연
 하여 안젓는디순애는 홀연길게호숨을 지으며 「여보 너병은 잊지희서 이렇케

을이 같가요 무엇이라고 발명할수업시 잘못흐죄를 이렛게 용서하여 주시고
 또 니병으로 허셔도 이처럼 심려를 하여 주시니 니마음은 었더라 다시 말씀
 할수도 업거니와 그러하신 마음을 받드리도 어서 소복이 되여셔 당신 심려를
 덜어 들여야 할터인디 「그런코 말고 다시 할말인가 순애가 그러튼 희기 할일에
 디하야셔 나는 얼마큼 감동이 되엿는지 칠년전에 순애를 원망하든 마음은 일
 절이져바렸소 그디도 아모조록 이전순애가 다시 된줄알고 쾌락흐 마음으로
 날을 보니 주오. 김중비에 게로 시집갓던 순애는 임의 죽어 업셔지고 지금여귀
 나와 한가지로 잇는 순애는 다시 부활(復活)하야 결박흐 순애닌고로 죄도 업고
 허물도 업셔 진심티씨의 썰로 피츠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던 심순애가 다시 되엿
 스니 전에 근심하든 일은 모다 이져바리고 호로 밧비 병이 평복될 생각을 호오.
 속담에 일으기를 병이라 하는 것은 마음으로 하여 난다 하는 말이 잇스닛사 그
 디의 병호는 것은 마음흔가지 먹게 들니 엿지 마음을 편안히 먹고 니병이 닌제는
 나으리라 하면 나을 것이요 니병이 나으리 생각하야도 낮기 어렵겟다 하면 쾌복
 되기가 어려운 법이니 아모조록 평심셔괴하여셔 지니오 그러하면 속히 낮지아
 니 할니가 만무하니 그디의 본디 병근원이 마음을 슈고로이 흐셔둬므로 낮스니
 사 인제는 그 마음을 아만 업시 하얏스면 엿지 하여 병이 속히 낮지 아니 하겟소」

「나도 그런 줄은 모로는 것이 아니지요 문은 아모조록 속히 병이 나으려고 마음
 을 편안히 하야도 이렛게 을애 가는 것을 보면 아모리 생각하야도 당신을 거역
 흐죄가 아지도 남아 잇셔셔 그러흔듯 하오」 「그러 할리야 잇소 그디는 성품을 일
 허바리도록 양심에 형벌을 밧은 스름인디 그외에 다시 더 무삼벌역을 밧을리가
 잇소 공평하신 스름은 회개흐스름은 더욱 사랑하시는 법이니 그런 념려는 조
 곱도 마오 그디의 병은 본디 갑혔던 연고로 이렛듯 쾌복되기도 오리가는 것이요
 병근은 아조 노엿스니 사 인제는 마음만 편안이 가지면 소복은 잠간 되오리
 다」 「나도 그럴듯이 생각은 호고 잇습니 다만 엿져다가 전생각을 하면 몸소
 리가 처져요」 하며 순애는 고개를 숙이여 수일의 여개에 의디하야 시니가 버
 들스기로는 썩썩리우는 소리 봄날이 더욱 한가하다. 돌흔 산우으로 좁은 길을
 좇차나아가는 이삼인의 초동들은 디개를 여개에 걸메이고 디개작티를 두다리
 며 고물々々 디내여가는 곳으로 좇츠 시고를 잡아 한마디가 들니 인다 「부운갓
 혼우리 인생 사랏기에 낡상봉하디 죽어셔도 라가면 정든 님을 만나기 어려워라」
 데십삼장 團欒 household (단란한 가정)

순이의몸이 회복되기를 기다림이니 원리순이의병은 리수일을사모하야 일우
 었던병인고로 임의목역을 달한 오날에 일으려서는 순이의 몸은 비디니여간
 후 개인들과가호야 말근정신과 고흐려도는 일곱이전에 아름답던 순이의얼
 골이 다시 도라고고 항상 울을불나흐던 수일의형용도 생기가 의양사디 나타
 났더라. 결혼례식을 거행한이후는 순이는 곧게단장을 갖추고 온화한볼눈에
 영창문을 열치고 정전에 만개한 꽃쌈을 내어다보며 안져잇스며 수일의신문
 을들고 정신업서 참척히보는 모양을 이우도록 드러다보더니 홀연 일골에 아
 릿다운 우음을 띄우며 「여보 나를 좀보시오」 하며 수일의 무릎을 감아니 혼
 든다 수일은 부르는 소리에 손에 들엇던신문을 내려노으면 고기를 들어순이
 를 치어다본다 「니일골이 예전보다 펴 나히가 먹어보지요」 「글세」 하며 수
 일은 유심히 순애의 일골을 이리저리 드러다보는것을 문득 붓그리여 일골을
 불키고 고기를 도로키며 「아이고 남의일골을 왜 그렇게 드러다보시오」 「자
 셔히 보아야 늙엇는지 더 젊었는지 좌우간 대답을 하지오」 「늘마다보면서
 그것을 모른단말이오 인제 서삼스럽게 드러다보게」 「보기는 리일보지만은지
 금보는것은 보는법이 다르거든」 지금자셔히보니셔 병중에난 일골이 몰나보
 게되얏드니 인제는 전보다도 더젊어보이고 더 어엿어보이는걸 「공연이 속

이노라고 그리시지 었지히셔 더젊을수가 잇소」 아니 정말이야 단장을 어엿
 부게히셔 그리흔지는 알수업구면은 었든지 곱기도 더하고 진소위 싹갖흔
 미인이로구면.....그러나 나는 그럴저럭 아조다늙엇소」 하며 수일은 은근
 히 우음을 띄인다 「아이고머니 거진말은 퍼하시네 지금 신문보고게신일골
 를 엿볼감이니 안져보니셔 전보다 조곰도 드르신데가엿던티요 본리어엿부든
 스나희는 나희가먹어갈수록 스나희 답게어엿버지난게야요」 「예전에 내나히
 이십안팎 되엿슬씨에난 후시 어엿분리도가 잇섯든지 아지못하겠지만은 그간
 세상에 여러가지 풍파를 겪고난후에 나히불셔 삼십이 되엿스니 인제난점々기
 우러갈뿐이지 었지 순이의 비필가음이야 되겟소 그러나 우리가 울고 리별하얏
 다가 다시맛나 부々が 되엿스니 이는 런정흔 인연으로 알고 좃코그르고간에
 그럴저럭 지닐수밖에잇소」 「천만에 룡담으로라도 그런말씀은 하지마시오나
 는 그렇게 더럽은몸을가지고도 감히 당신의엿헤 모시게된일은 자다가도 조
 와못견디겟는디 왜 그렇게 말슴을하시오」 「앗다 그러면 우리 내외는 제조가
 인(才子佳人)이 똑갓치 만났다고하여 두지 하々々々」 수일은 쾌활하게 한번
 우스면 순이도 입을가리우고 붓그리는 우음을 금치못한다 쓸압해서 모회를
 줌노라고 희초스기로 다니는 뉘를쌍은 썩々거리며 모회를 주어 암회를 부른

후다시 고기를 들고 먼곳을 훌쩍바라보더니 날기를 두어번치고 썩기유니
 하는 낮들우는 소래에 이웃이 모다한가하다 「저것좀 보오 아모것도 아치못하
 는 저런들들도 부창부화」夫唱婦和」을야서 화목하게 세상을 지내느니 나는 무
 산 혼신이 써여셔 그세에 그렇게 당신의 뜻을 거역할수가요」 「그러한것이
 가위 이세상을 지내야갈세에 타락이라하는 것이 지그런심각을 다시 할사담이
 업소 우리가 이제는 일창춘몽을 늦게 깨다랏스니 이후로는 세상에서 공익사
 업에 힘을 쓰도록합시다」 나는 무엇이든지 하는 터로 식이시는 터로 싸라갈
 썩이지오 분골쇄신이 되기로 엇지거역할오릿가」

장한몽 하권 종

大正五年十二月二十日 初版發行
 大正十二年十一月十五日 印刷
 大正十二年十一月二十日 六版發行

長恨夢第下卷

定價金五十錢

京府府堅志洞六十番地
 著作兼發行者 朝鮮圖書株式會社

右代表者 洪 淳 泌

印刷者 京城府公平洞五十五番地 沈 禹 澤

印刷所 京城府公平洞五十五番地 大東印刷株式會社

印刷所 京城府堅志洞六十番地 朝鮮圖書株式會社

總發行所 朝鮮圖書株式會社

電話光化門一七七番
 振替京城八二五五





明倫彙編
家範典
卷之六十一

京師通志卷之六十一

大梁府志

京師通志卷之六十一

武陽府志

京師通志卷之六十一

海寧府志

臨朐縣志

京師通志卷之六十一

法苑珠林卷之六十一

法苑珠林卷之六十一

十二卷十一頁二十頁
十二卷十一頁二十頁
十二卷十一頁二十頁